

2014 안양사랑

글모음집 / 제11집



2014 안양사랑

글모음집 / 제11집



안양시립석수도서관
등·록
*** 2014.10.30 ***
제 RF009377 호

도서관 헌장

-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 하는데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발간사 Greetings ●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갑오년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남은 2014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올 신년은 더욱 뜻 깊은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독서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안양시 도서관을 빛내주셨습니다. 그 한분 한분의 소중한 경험을 글로 모아 이번에 『안양사랑 (제11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다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글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소통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안양시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도시' 구성에 앞장서, 시민들께 보다 다양한 독서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계 유명 인사의 인문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문학의 산실인 '안양작가특화자료실'을 운영하여 안양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보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도서관은 시민 여러분께 책을 가까이 하며 한층 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사랑(제11집)」이 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12월
안양시장 이 필 운

Contents

발 간 사 05

도서관 행사 사진모음 10

Part 1 주부독서회원 글모음 13

독후감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만안도서관 다솔회 김미정)
- 엔트로피 (만안도서관 다솔회 우경미)
- 28 (박달도서관 담쟁이 양두영)
- 정글만리 (박달도서관 담쟁이 채미애)
- 꾸뻏씨의 행복 여행 (박달도서관 담쟁이 김선미)
- 무탄트 메시지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조경희)
- 아파트 공화국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이은희)
-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길 (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모임 김미옥)
- 내 마음 속의 그림책들 (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모임 박지애)
- 모래의 여자를 읽고 (평촌도서관 독서동아리 목향회 기선계)
- 둔감력을 읽고 (평촌도서관 독서동아리 목향회 이정희)

수필

- 사춘기 (만안도서관 다솔회 문인선)
- 키는 커야 한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시

-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만안도서관 다솔회 박무영)
- 미안한 날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 고수는 말이 없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 늦은 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문명란)

독후감

- 사람을 품어 나라를 세우다 (안양부림초등학교 4학년 심준형)
- 바다의 왕 장보고 (만안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송혜민)
- 양파의 왕따 일기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일초등학교 4학년 박준은)
- 산왕부루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해오름초등학교 4학년 임영빈)
- 오늘 너 최고의 고양이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송신영)
- 10분의 시간을 파는 가게 (신기초등학교 5학년 정지은)
- 반향과 방황 (호성초등학교 5학년 오혜연)
-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달안초등학교 4학년 맹주영)
- 내 이 돌려줘 (부흥초등학교 1학년 박태희)
- 도전의 리더십 조앤롤링 (샘모루초등학교 5학년 이태경)
- 아라비아 숫자 (안양부흥초등학교 5학년 조우영)

시

- 휴대폰아, 그만 자자 (안양부흥초등학교 4학년 박재한)
-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희성초등학교 6학년 강경민)
- 나무 (안양 양지초 김다윤)
- 우리 언니에 대하여 (안양 양지초 송예진)
- 벨로키랍토르(랩터) (석수초 정민준)
- 초등학교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조나영)
- 나만의 길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일초등학교 4학년 박준은)
- 비 오는 날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김나연)
- 소중한 일곱 동무 (호계도서관 어린이독서동아리 안윤서)
- 점자와 시각장애인 그리고 나 (호계도서관 어린이독서동아리 채혜량)
- 우리집 도깨비 방망이 (달안초등학교 3학년 홍나연)
- 논다 (달안초등학교 4학년 맹주영)
- 내 친구 (범계초등학교 4학년 윤상현)
- 하늘 (화창초등학교 4학년 신은성)
- 파란색 하늘 (화창초등학교 4학년 조현정)
- 안네, 키티의 절친 (관악초등학교 5학년 최은서)
- 아테나의 위기 (비산초등학교 5학년 장민예)

청소년 글모음 81

레오나르도 다빈치 (별말도서관 이용자 안양외고 1학년 차정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별말도서관 이용자 안양외고 1학년 차정현)

체험수기 87

꿈꾸는 석수도서관 다문화교실 (한국어교실 강사 문경실)
수요일은 설레임 (박달도서관 행복한의자나무 박명숙)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박달도서관 어린이실 박미정)
귀여운 꼬마들이 안녕 (석수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성현)
자원봉사 체험수기 (호계도서관 씨앗열매독서회 자원봉사자 김선아)
추억거리 하나 더. 그림자극 공연 (어린이도서관 동화읽는어른모임 조혜원)
책을 나누면서 얻은 행복 (안양예고 2학년 최은솔)
다시 만나요 책 잇 아웃 (안양예고 1학년 강기련)
평촌도서관 동화구연봉사단체 (이보영, 황숙자, 정미자)

초대 작품 전 109

노을 (박정득)
스며든 창문 빛에 대하여 (김말희)
남편의 중년 (박현)
가래떡 (강애란)
『달과 6펜스』를 읽고 (석수도서관 김순이)

도서관 이용안내 121



2014년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이모저모



효 인형극 - 석수



다문화 수업 다다익선 - 석수



인문독서아카데미 - 석수



최양선 작가와의 만남 - 석수



어린이 로스쿨 - 평촌



잡지배부행사 - 평촌



겨울독서교실 - 평촌



동화랑 미술이랑 - 평촌



2014년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이모저모



내 아이를 위한 북아트 - 만안



도서전 : 아무도 빌리지 않은 책 - 만안



유아 영어스토리텔링 - 만안



엄마의 그림책 이야기 - 만안



여름독서교실 - 호계



재미쑥쑥 동화구연 - 호계



도서관에서 만나는 박물관 - 호계



오페라 스크랩북 만들기 - 호계



2014년 사진으로 보는 도서관 이모저모



케이크 만들기 - 박달



책 읽어주는 엄마 - 박달



찾아가는 음악회 - 비산



넵킨아트 - 비산



발명창의교실 - 어린이



글사랑독서회 - 어린이



옛이야기 전래놀이 - 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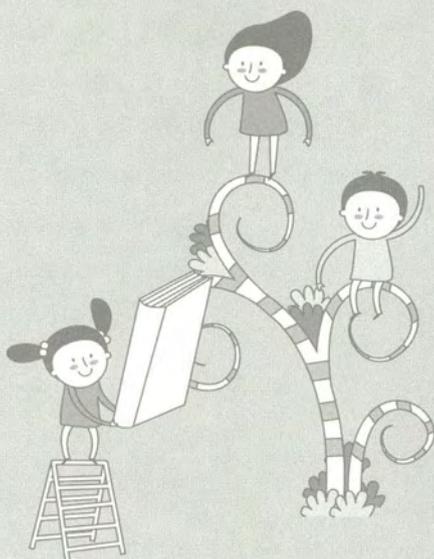


행복한 진로여행 - 비산



'주부독서회원 글모음'

* 독후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만안도서관 다솔희 김미정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책을 덮은 뒤 맘속이 따뜻해짐이 올라오고 그 따뜻함과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아지랑이가 눈앞에 떠올랐다. 작가가 작성하고 감추고 보여주는 형식은 영킨 실타래가 순간 풀리면서 실의 끝과 처음이 짝악 연결되면서 좌르륵 필름 넘어가듯 이야기가 다 연결되면서 반전의 재미를 선사해주었다.

기적은 마음의 끈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뤄지는 것 같다. 인연 또한 마음의 끈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뤄지는 것 같다. 인연 또한 마음의 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소설은 그렇게 인연으로 시작하고 마음의 끈의 상징인 '편지'를 도구로

각기 다른 사건의 상담 같았지만 결국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소설가라고 했다 그의 작품을 처음 접해보았지만 추리소설을 잠깐 좋아했던 나로선 추리소설에서 보여 지는 재미와 실화 같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 더욱 좋았다. 다른 사람의 고민에 느끼고 생각하고 도우려하는 인간적인 아름다움, 환광원 출신들의 결초보은, 생사 앞에서 지나치면 아이가 죽는다는 생각에 구하는 의로움, 상담내용마다 진실하게 다가가는 진실함, 죽음을 통해서 아이의 일생에 누가 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부모의 무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주는 사족간의 사랑과 의리 등,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나야미'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 상징적 잡화점이라는 곳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인간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다.

작가의 바람대로 그 내용은 충분히 읽는 이들마다 전달되고 전달되어 그 따뜻함이 전해지고 전해지며 이어지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기적이 소설 속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일어나길 바란다.

엔트로피

만안도서관 다솔희 우경미



제레미 리프킨 지음

딱딱한 뇌를 깨우는 책들이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는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전면 부인하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기술을 써도 그 옛날의 낙원으로 돌릴 수 없으며, 실용주의나 합리주의는 물질에 대한 ENTROPY의 증가를 100% 이해하기 전엔 절대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로 통용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던져진 것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사회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다. 우리의 교육, 부의 재분배, 자원, 경제학, 군대에 대해 자세히 알려 하면 다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진실은 소수에 의해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불편한 진실은 처한 상황이 열악하다. 왜 이렇게까지 와 버렸을까?

마음이 다치고 병드는 것도 꾸역꾸역 참았던 것이 점점 터져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럼 곧 불편해지고, 우리는 당장 손에 든 것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만 알면 나만 손해 본다고 느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나 이미 우리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같이 배우고 느끼고 시작하면, 지옥으로 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작가의 이론은, 뉴턴과 같이 대중적으로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에게는 불편하다. 고전 물리학에 생계를 걸고 있는 대중은 힘이 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던진다. 인류가 더 이상 물러난 곳도, 사용할 자원도 공기도, 다 재생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변해 인류가 비자발적 행동을 요구 받게 될 것이라고,

꾸삐씨의 행복 여행

만안도서관 주부독서회 담쟁이 김 선 미



프랑수아 룰로르 지음

예전에 tv 달빛 프린스에서 소개가 되어 알고는 있었지만,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이후로 또 한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음을 준 책이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행복의 참된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소설로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파리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다.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상담을 원하는 이들로 넘쳐났다.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친절하면서도 자극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를 찾는 여자,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남자, 사랑의 상처를 입어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게 된 점성가...

꾸삐 역시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본 것을 통해 행복의 관한 배움 23가지를 적어간다.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꾸삐의 행복을 모두 공감할 순 없지만 위 세 가지가 나에게 가장 와 닿았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는 날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삐씨의 행복 여행을 읽으면서 참 단순한 것으로도 행복해 질 수 있구나 라는 것 또한 느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 중

우리 함께 즐겨 보자구요

이 시간들도 언젠가는 다 좋은 추억이 되겠죠 ...

무탄트 메시지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조 경 희



말로 모건 지음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몇 가지는 내 삶에 큰 획을 그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무탄트 메시지이다.

반복해서 읽어도 읽을 때 마다 좋고, 행복하며, 삶의 근원을 생각하게 만든다. 미국의 여의사가 호주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 62명과 함께 호주의 사막을 4개월에 걸쳐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다. 기본 구조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를 말하는데 그들은 문명인 우리를 무탄트로 불렀다. 그 부족은 말로 모건이라는

의사를 무탄트 메신저로 선택한다.

그녀에게 이 여행은 두렵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꿈쩍없이 포로가 된 기분으로 시작되었다. 척박한 사막을 거의 맨 몸으로 낮에는 40도에서 55도사이의 더위에서 걸으며 저녁은 정 반대의 추위에서 잠들어야 했다.

그들은 거의 침묵하였으며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텔레파시가 가능한 것은 크든 작든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은 마음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적이 없었다. 물 한 모금, 음식으로 자신을 바치는 동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점 등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감사와 경외로 가득 했던 순간들이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똑같은 말로 축복한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이 여행길에서 너를 도와 주겠다.”고 죽음도 잔치로 받아들여서 우는 사람은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며, 우연이나 무의미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리 떼의 습격은 우리에게 필요한 몸 청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앞장을 서야만 한다.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 전에는 결코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없다. 시험에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시험을 치르는 일이다. 길잡이가 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어 모든 생명을 하나로 이어 주는 우주 의식을 향해 도움을 요청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고,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알려 주세요.' '물이 되어라 네가 물이 될 수 있다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물 자체가 되었다.

우리는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더욱 발전한다. 인간의 영혼은 신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은 순수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창조하고 보살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존재 이유를 높이 평가하며 생각하게 된다.

이 부족과 함께 한 여행은 현재 생활을 반성하게 만들며 당당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증명해 준다.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충만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두려움을 조장할 수도 있다.

내가 신에 대해 알고, 우주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날 것의 여행을 하고 싶다. 몸과 마음의 껍데기를 벗고 오로지 존재 자체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나는 문명의 혜택 안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잠깐 씩 드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지?

편리에 파묻혀 축수가 무더지는 상태, 맑고 투명하며 따뜻한 영혼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 그 때를 기억하고 잘 지내다가 마감해야 하지 않겠나?

우주, 지구, 한국, 평촌 이 곳이 나의 꽃 자리 임을 기억하며, 산, 공기, 사람, 바람, 바위, 물 등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과 존재 자체를 공유하며 존중하며 사랑하고 가고 싶다.

이 책이 나에게 온 의미는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여라' 무시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행동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크게 보고 우주 의식을 믿으며 당당하게 매 순간 섬세하게 온 몸으로 살아내라'

아파트 공화국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이은희



아파트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지음

지은이 발레리 줄레조는 프랑스에서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젊은 연구자이다.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연구로 파리4(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마르-라-발레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는 이 박사논문으로 지리학회에서 수상하는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삼고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국립동양어 연구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느꼈던 설렘을 그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을 처음 방문했던 1993년 그녀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놀라 이를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그녀는 동료 연구자들 사이에서 “왜 한국의 아파트냐”는 회의적인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프랑스 인들은 1950-60년대에 건설된 도시주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부해진 아파트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 그들에게 이 아파트 단지들은 씨테(cite), 관리부실, 볼품없는 건축미, 저급한 생활환경을 연상케 한다.

그렇지만 대단지 ‘아파트 = 도시문제 발생지역’ 이란 단순도식은 체계적으로 실증된바 없지만 서구 도시의 상징체계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조사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한국의 아파트 현상을 의문의 여지없이 받아들여 온 한국인들에게 그녀는 당연한 것을 이해 못하는 순진한 외국인으로 취급되기 일쑤였고 자주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연구하는 기간 내내 ‘대단지 아파트 = 중산층 이상이 누리는 현대적인 삶’ 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가 서울의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폭력이나 저급한 생활환경이 아니라고 프랑스 친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꽤 많은 노력을 소모해야 했다.”라고 기술

하고 있다.

그녀의 의문은 한국에서는 “왜 대단지 아파트 단지건설이 그토록 급격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광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 되었다.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때문이었다 해도 어떻게 시민의 주거 구조와 생활양식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 5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겪은 대도시 서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다소 이론적인 차원에서 지리적 실체의 가시적 반영체로 정의 되는 “경관”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녀의 관점은 우리가 또는 건축학도로서의 내가 알고 있는 경관, 아니 스카이라인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영역일 것이다. 경관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그 환경 속에서 일구어 낸 모습들을 분석하는데 이 개념을 사용했다. 나아가 경관에 관계된 사회의 기능과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으로 관심을 확대한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지리학적 작업은 경관이 단순한 경험적 탐구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아파트 공화국 분석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1970년대 초반부터 서울에서 시행된 도시정책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1950년대 서울은 ①나지막한 스카이라인 ②상가와 주거지역의 구분 ③대로와 그 뒤편의 보행자 골목으로 대별되는 도로형태 등 세 가지 특징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기술한다. 그녀의 기술대로 이런 도시의 형태는 조선시대부터 계승된 것이란 의견에 나도 공감 한다. 19C 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전통적 도시 구조를 유지 하다가 한국 전쟁 후 마당이 딸린 한옥이 점차 사라지면서 주거 지역의 형태가 상당히 달라졌고 새로운 건설 기술인 시멘트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 온돌에서도 시멘트 판이 사용되었다. 1958년 서울에 건설된 종암 아파트는 서울지역에 일반화될 새로운 주택 형태, 즉 ‘아파트’의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좀 더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시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1962, 토지구획이나 건축용지에 적용되는 <건축법>1962의 법안이 수립되었다. 이에 근거 1966년에 1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0년 단위 계획법은 잘못된 인구예측과 재정난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까지도 국민들의 아파트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1960년대에서 1990년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 사회로의 빠른 전환, 군대식 선전 구호, 독재정권에 의한 경제성장 등은 한국적 모델을 특징짓는다. 재분배의 측면보다 양적 성장 그 자체에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행복이 아닌 사회의 행복이라는 특별한 비전에 접목된 한국적 태도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1970년대 초반 시작된 도시 개발 전선의 산물인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선전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구체적인 예로 종로, 성북, 서대문, 용산구에 거주하던 부유층 고급 인력을 고용하고 있던 몇몇 대기업을 강남으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강남으로의 분산정책에서 핵심은 학교이전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합격의 왕도로 여겨지던 경기고등학교는 조세감면과 낮은 지가 등의 혜택을 받고 강남으로 이주한 대표적인 명문학교이다. 기업과 학교를 강남으로 분산시킨 정부 주도의 적극적 정책은 아파트로의 부유층 이전을 부추겼다. 동부 이촌동 단지 내 공무원 아파트 분양은 이러한 전략의 전주곡이었다.

그렇게 부유층과 상류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장려책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학교 이전 등을 포함하는 거주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이 뒤따르면서, 이들 계층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원천은 상층의 도시 중산층들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있다. 여기서 또 프랑스의 아파트 단지와 한국의 아파트 단지의 진화과정에 있어 중대한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주택정책의 방향이 대규모 건설로 자리 잡은 것은 1973년으로 그 기초가 된 것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었다. 대규모 주택 건설은 건설부의 정책목표로 설정되면서 일관되게 지속되었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1976> 주택 80만호, 4차 계획 <1977~1981> 120만호, 건설이 계획 됐으며 1981년부터 15년간 500만호 건설이란 장기 목표가 수립되었다. 이 목표는 1988년 계획에서 다시 상향 조정 4년간 200만호 건설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1993년 계획에서는 1998년까지 5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잡았다. 1972년 공포된 <주택건설 촉진법>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통해 도시에서 용적률 300%에 건물 높이의 제한이 없는 '아파트 지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강남의 대규모 도시 개발 열풍을 뒷받침한 것도 이 법이었다.

그녀가 분석하는 아파트라는 산물의 규명에서 유럽의 아파트는 르 코르뷔제 식의 '살기 위한 기계' 즉 산업사회의 산물이었지만 "한국의 아파트는 산업화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서구 근대주의자들이 산업화 이전 전통사회와의 단절을 강하게 열망했다면, 한국에서는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났기에 이미 '옛날로부터의 해방'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과거를 처박아 놓고 미래를 더 열망 했다" 라고 기술 한다.

이 책을 선택했던 배경에는 <아파트공화국>이란 제목이 몹시 거슬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국인이 쓴 것도 아닌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아파트가 공화국이란 단어와 합성되어 단번에 경외나 찬사가 아닌 일종의 무시와 야유, 조롱이 섞인 제목 때문에 이 책에 눈길이 머무르게 되었다.

20대 때 전공이 건축공학이었고 더구나 그 건설, 소위 노가다란 직업에 근 20여년을 종사했던 나로서는 슬한 문학작품들도 좋지만 “너는 꼭 읽어 주리라”는 다소 억지스런 오기가 생긴 것은 과거 나의 전공과도 연결되어 호기심을 발동시킨 의미가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많은 분석과 자료들은 이 책을 읽는 80년대 건축학도로서 나의 마음을 많이 찢어 놓고 우리의 교육을 다시금 반추하게 만들었다.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지 않을까?” 일정부분 이런 교육부분까지도 되돌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 역시 작가가 설명하는 많은 부분 “상황에 대한 결정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킨다. “이들은 아파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저층 단독주택의 대안을 일찌감치 논쟁에서 배제 시킨다”라고 주장하는 그녀의 분석은 오늘에 나 역시 그 결정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본적 없는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시험식, 평가식 주입식 교육이 그런 결정들에 쉽게 동의하면서 스스로의 사고를 차단하고 합리화 하지 않았을까? 나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고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입되었던 교육의 무지막지함을 더 인식하게 될 뿐이다.

이런 나의 생각이면에 한 번도 그 아파트의 편리함에 회의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의 자각이 들어있다. 더구나 건축전공자의 한 사람으로 스카이라인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땅 좁고, 자원 없고 인구 많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 대해서만 한탄 했을 뿐이었으니!... 땅이 좁아 저층의 주택단지보다 대안 이었던 (용적률의 확대로 끝없이 올라간) 고층아파트의 인구밀도가 더 낫다는 역설적인 분석의 결과는 나를 아연하게 했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에서 반성하고 재고되어야 했던 문제들은 전혀 자각의 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나의 사고에서 20년-30년 주기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날뛰는 아파트의 현수막들을 보면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기본 100년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니 아무 문제없다. 재건축은 국가적인 낭비이고 건설업체의 돈 벌기와 일부 조합원들의 알량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매번 재건축을 하겠다니 참 문제다”라고 주변 지인들에게 얘기 했을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외부의 타인들을 통해 재고 받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고의 경직성이 심각해서 정부나 학교의 일방적 통행의 사고를 수용하게 된다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 물론 한국의 아파트

는 우리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녀의 주장처럼 한옥의 옮겨진 형태인지도 모른다. 신발을 벗는 공간과 신는 공간, 거실과 주방, 식당의 구분 그러나 다과상이나 교자상을 이용해 다이닝과 키친의 공간이 수시로 옮겨 다닌다는 점에서 전통의 방이 수용했던 다기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여겨지기는 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아파트가 서구적 또는 현대적이라 지칭하는 부분에서 그녀는 현대적 또는 서구적이란 의미가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한다. 그녀는 우리의 고유 건축방식이 기와이거나 초가의 지붕을 얹는데다 흙과 짚 그리고 나무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 건축의 방식을 거의 상실했다. 1960-1970 엄청난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것은 모두 낡고, 잘못되고, 형편없고 구시대적인 유물로 전락했다. 초가집을 헐고, 마을길도 넓히고 열심히 일해서 '잘살아 보세'가 모두의 목표였다. 더 불어 한복과 우리가락까지도 일소해야 할 낡은 잔재요, 청산해야 할 유물이었던 것이다. 참 많은 우리 것들을 잃어 버렸다. 교실에서는 양악이 울리고 복식은 이미 서양복식이 당연한 옷차림이 되었으며 모든 건축물은 철근과 콘크리트 시멘트와 우리가 지배한다.

한옥의 흙과 짚은 습도를 조절하며 창호지 또한 빛을 조절하고 습도도 조절한다. 흙벽의 불편함이 개선되어 요즘은 황토와 짚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기술을 보유한 이들이 적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작금의 건축은 터구나 아파트는 당연 서구적 방식이다.

우리의 방식에 맞는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의 일부였던 삶이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을 파괴해 가면서 양산되는 방식,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방식은 아닌 것이다.

흙과 나무, 짚과 기와는 높고 튼튼한 구조를 추구하는 현대의 방식과는 이미 어울리기에 너무 어렵다고 단정 짓는 것 또한 결정론적인 사고의 일방통행 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건축을 해온 나에게도 난제인 것 같이 느껴진다.

구조적으로 양산되어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유리, 알루미늄이 친숙하고 또 손쉽게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건축이 지속되어 왔다면 기존의 재료 또한 어떤 식으로든 양산체계를 갖추었을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긴 한다.

요즘에는 물론 높은 비용을 들여서 황토와 짚을 섞고 나무와 기와로 전통가옥의 형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다.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습도 조절이란 기능이 결코 간과 될 수 없는 조상들의 지혜이며 복사난방인 우리의 난방방식이 겨울에 건조함을 유발하여 감기나 피

부의 건조함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토를 사용한 내부마감은 여름의 습함과 겨울의 건조함을 막아주는 우리 기후에 가장 적절한 마감이며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슬기로운 마감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황토 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우며 매우 쾌적한 잠을 자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 할 수 있어 비싼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전통방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제법 늘고 있는 추세이다.

나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 전통방식의 마감과 또 한국식 정원의 마당을 들여 놓고 싶다. 이런 식의 저층이 아니어도 내부 마감에서 시멘트 독이나 포름알데히드 수치로 끊임없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현재 건축 마감재는 다시 과거와 융합하여 건강한 마감재로 거듭나서 재구성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던 터였다. 현재 전통방식이 모두 배제되어 버린 우리의 건축 마감재는 술한 아토피 유발 물질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 역시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의 또 다른 면에는 프랑스인 특유의 잘난 체가 숨어 있었다. 아니 유럽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한 거대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따른 관점에서 본다면 6.25때 남한을 지원했던 미국의 파병과 원조가 우리를 오랜 미국의 문화적 식민지로 지배해왔던 원류임은 부정 할 수 없기도 하다.

더불어 우린 끊임없는 패배의식 속에 살기도 했었다.

발레리 줄레조가 그런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녀는 우리의 도로나 건축, 미국계의 상업적 식당 진출에 매우 꼬인 미국 따라 하기라며 비아냥댄다.

죽 뺀 대로가, 격자의 교통망이 단지 미국식 이란 말인가?

유럽식의 광장이 없어서? 아니면 방사형을 기점으로 뺀 주로가 아니 여서 미국식이라 여겨지는 모양이다.

미국식이라 단정하는 그것은 직선대로의 편리함 때문에 생긴 것이거나 우리 것은 모두 열등 하다고 버리고 싶었던 가난한 민족의 비극일 뿐이다.

우리의 방바닥이 온돌을 놓는 구들에서 연탄보일러로 그리고 지금은 엑셀파이프를 통한 온수로 데워 난방 방식의 변천을 거쳐 가스로 사용하는 매체가 바뀌었을 뿐 우리의 전통 복사 난방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을 지키는 일부이다.

아파트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었다고 꼬집으며 그래서 그것은 프랑스와 매우 다르다고 제기하는 부분은 동의한다.

“프랑스의 국민주택이란 하위 계층을 정상적인 환경에 수용하기 위해 국가의 법률적 재정적 자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 대상이 충실하게 수용

되어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주택이란 규모도 도시 중간계층이 거쳐서 가는 하나의 거점이며 다른 면에선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었다.

도시 하층민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밀려나서 끝없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 나가거나 산꼭대기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험난한 삶을 지탱해 왔다. 아직도 그런 잘못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21C에도 용산참사의 비극은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태도가 이전 분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며 화를 내기만 했던 뉴스 시간이 기억난다. 토지의 강제 수용 그리고 양산화 되는 도시 빈민에게 정부차원의 국민주택이 진정성 있게 분배되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이제는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도시에서 아파트는 20-30년이 지나면 끝없이 재건축의 논의로 떠오른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발레리 줄레조의 주장이 과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그 재건축이 국가적 소모이며 낭비인 것도 자명한 현실인 점은 분명할 것이다. 그것이 외국인에 의해 발가벗겨 지는 것 또한 나의 치부를 모르지 않는 거부감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런 한편 지난 여름 동생의 영국인 친구가 한국으로 3주 일정으로 놀러 왔었다. 그녀는 김포와 화성 그리고 서울의 고궁과 순천만, 친정인 부산에 들러 부모님 댁에도 가고 새로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한 넷째 여동생 네에도 들렀다고 한다. 넷째가 입주한 아파트는 올해에 완공된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이며 정원과 조경이 가히 부산의 대표라 할 만큼 뉴스에도 대대적인 보도가 된 곳이다.

당시 영국인 친구는 아파트의 거대한 지하 주차장과 무인 경비 시스템, 아름다운 조경과 현대적 설비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며 감탄 했다고 동생이 전해 주었다. “영국 어디에도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대규모 설비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은 없다”며 심지어 동선이 분리되어 지상의 아이들이 차로 인한 위험까지 모두 배제시킨 훌륭한 아파트건축에 계속되는 찬사와 감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도 자연을 사랑해서 자신의 개인 사유지까지 국립공원지정에 반대하지 않는 영국인들에겐 이런 초 현대판 건축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아파트를 발전시켜온 우리의 앞선 건축기술 시스템은 한편 해외로 수출되어야 할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런 앞선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은 때에 따라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도 하다. 단지 우리의 도시가 너무 많은 아파트로 넘쳐나서 경관에 관한한 어쩔 수 없는 썩병이 되어 버렸음은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이다.

스카이라인은 오직 아파트 꼭대기 밖에 없다. 산과 강은 거대한 아파트에 포위되어 버렸다. 때에 따라서 어떤 외국인의 눈에는 이 거대한 주거단지가 경외의 눈으로 보이는 찬사가 되기도 한다.

그녀의 관점 「경관」에서 시작된 아파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나의 수원 화성 방문에서 더욱 극명해 지는 느낌이었다.

KBS에서 방송된 화성의 행궁동에 대한 <자동차 없는 거리 시행>에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적 모습은 또 다른 대안처럼 보였다. 그 후 수원화성을 답사한 인문학기행에서 화성의 행궁보다 더 다가온 모습은 성곽안의 행궁동 모습이었다.

TV화면에서 이미 차 없는 거리의 주민들이 서로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았던 나로서는 행궁동의 낮은 건물과 예쁜 벽, 너무 양증맞은 간판들, 자투리 공간 마다 심어진 꽃과 식물들은 충분히 아름다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2, 3층의 야트막한 건물과 서로에게 개방된 마당들, 시선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라인은 좁은 국토 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의 건축으로 떠올랐다.

결국 그녀의 주장대로 아파트의 일회성 즉 하루살이란 결론에 화가 나면서도 굳건해진 경비와 보안시스템이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아파트의 삶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지지하는 이웃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보안이고 경비가 될 것이란 이론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유지 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지만 정부차원의 관리가 일정 정도 부여되어 20-30년만에 새로 짓는 낭비적 상황은 재현되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양산에 대한 문제점도 자각되어 다른 차원의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 또 석유 정점논자들이 주장하는 정점의 시기가 이미 지났다면 우리의 아파트들은 에너지차원에서 무방비 상태임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아파트는 에너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최악의 주거 형태이다. 물론 저층을 제외하고 말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란 조롱과 야유 앞에서 단지 분노만 할 현실은 아니란 걸 인정하게 된다. 어떤 것이 하루살이가 아닌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 책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전통을 잃어버린 건축방식에 우리의 건축과 친환경적인 자재를 재구성하여 거기에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낮은 스카이라인이 조성 된다면 우리의 경관도 아파트 양산으로 가려진 시선에서 다시 강이나 산을 볼 수 있는 경관으로 재탄생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대안으로 수원 화성내의 행궁동이 있음을 떠올렸다.

아이 교육이 끝나면 나도 행궁동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그 날의 화성 방문을 떠올리며 야트막한 주택의 골목길에서 꽃을 키우는 꿈과 공동체로서의 이웃과 더불어

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진다.

그것이 설령 법적인 제약에 따른 신축규제에 묶여 올라가지 못한 건축물, 억지 춘향이 일지라도...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때에 따라서 규제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사회적지지 속에서 우리방식의 건축, 조망권과 경관이 더불어 확립될 그날을 도출해 낼 시기인 것이기에 되새김도 필요한 것이다.

‘아파트공화국’

그 씁쓸함 뒤엔 우리 모두의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발가벗겨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왜 대단지 아파트 단지건설이 그토록 급격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아파트를 향한 한국인들의 열광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가는 길

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모임 김미옥

낙엽이 수북한 거리를 사각사각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걷다 문득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노란색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 가하는 착각이 든다. 양철통 아저씨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히수아비는 생각할 수 있는 뇌를, 겁쟁이 사자는 용기를, 도로시는 집으로 돌아가고픈 소망을 안고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올해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며 내게 새로이 다가온 그림책들을 떠올려본다.

먼저, 찰스 키핑의 <빈터의 서커스>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 책읽어주기를 하며 지칠 때마다 나의 이 작은 행동이 서커스를 본 아이처럼,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힘과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다시금 힘을 내게 만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꽃꽃’처럼 이미 알고 있던 그림책인데 자세히 보고 다시 보니 사랑스런 그림책들을 발견했다. 가브리엘 뱅상의 <세레스틴느 시리즈>가 그랬다. 그림이 예쁘지도 정성껏 그린 것 같지 않아 휘리릭 보고 덮어버렸던 그림책인데 다시 자세히 소리 내어 읽어보며 군더더기 설명 없이 담백하고 따스한 대화글과 그림으로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가의 저력이 보인다. 또한 이해하기 난해했던 글 없는 그림책(어느 개 이야기, 꼬마인형, 거대한 알)은 보고 또 보며 보는 이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역시 책은 여럿이 같이 보아야 그 맛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구나!
또한 같이 나눌 때 다양한 삶과 어우러져 풍성해지는 거구나!

플꽃과 같은 그림책이 또 하나 있다. 권정생 선생님의 <엄마 까투리>이다. 눈으로만 대충 읽고 덮어두었던 그림책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타고 내게 왔다. 글과 그림이 살아나 꿈틀대며 가슴 한구석 찡하게 감동을 주는 영화를 한편 보고난 느낌이였다. 소리 내어 읽어주기의 맛을 제대로 알게 해준 그림책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어야 하는 거구나! 5월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생 어른에게까지 읽어주었다. 매번 새록새록 다르게 나를 감동시킨다. 그러더니 가을엔 '마마'라는 드라마에서 이 그림책이 소개 되는데 드라마작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것에 감동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로 친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유리슬레비츠'와 '고미타로'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밀쳐두었는데 내가 그 매력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였다. 역시 책은 여럿이 같이 보아야 그 맛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구나! 또한 같이 나눌 때 다양한 삶과 어우러져 풍성해지는 거구나! 모두가 아는 것을 몸소 다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였다.

며칠 전엔 초등학교에서 축제의 한 부분으로 운동장에서 '남사당놀이'를 공연했는데 우연히 딸과 함께 구경을 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간 그곳에서 <페루페루>의 영감을 만났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허연 수염의 그 얼굴, 그림책으로 모두가 재미있어하는데도 시큰둥했던 나인데 생활 속에서 만나니 어찌나 반갑던지 다시금 그림책을 찾아 도서관에서 세 번씩이나 찾아가 오매불망 기다리다 대출을 하여 손에 들고 소리 내어 읽으니 주인공들이 다시 살아나 움직인다. 난 어느 새 남사당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들에게 <페루페루>를 들려주고 있었다. 게다가 우연히 본 텔레비전에선 줄을 타는 어름산이의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인간극장'에서 보여진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그림책들은 이렇게 나의 삶으로 파고들어 함께 호흡하고 나를 타이르고 다독이며 깨닫게 하고 있었다.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가을의 노란 길을 걸으며 내가 지나온 뒤안길이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고 오밀조밀한 작은 행복들이 발자국처럼 남아 있음에 감사한다. 이 길이 어디까지 나 있으며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북이 쌓인 낙엽처럼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추억들이 헛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영양분이 되어주길 바란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책을 만나 감동하고 가슴 따스해질지 설렘을 안고 기다려본다.

내 마음 속의 그림책들

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모임 박지애

많지도 않은 딱 한 명 있는 나의 남동생이 어렸을 적에는 참으로 얄미웠다. 기억은 안나지만, 동생을 안고 있는 엄마 옆에 앉아 팔장을 끼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나와의 외출을 강요했고 그래서 나는 자연농원[현 에버랜드]가서 사진도 찍고 왔다)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들어도 동생에 대한 어렸을 적 나의 감정은 좋았을 리가 없다. 그런 내가 엄마처럼 남매를 낳았고, 첫째인 내 딸은 내가 맞이했던 나의 어렸을 적 감정을 나처럼 느꼈을 것이다.

앤서니 브라운의 '달라질거야'를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아!'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소년의 눈에 비치는 모든 사물의 변화와 그림에서 느껴지는 소년의 마음 속, 소년의 마음이 어릴 적 나의, 지금 내 딸의 마음임을 그 책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내 딸의 어린 시절을 이어주는 책, '달라질거야'

유리 슐레비츠의 '비오는 날'의 소녀를 만났을 때, 어릴 적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의 저녁은 혼자일 때가 많았다. 일하시는 아빠, 엄마와 밖에 놀러 나간 동생이 없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나. 집에서 듣는 밖의 소리, 밖의 날씨. 나는 집에 있지만 이런 저런 상상들로 이런 저런 생각들로 시간을 보낸다. 비오는 날의 소녀의 표정은 나의 어린 시절보다는 행복해 보인다. 난 어땠을까? '비 오는 날' "나도 심부름 할 거야", '이슬이의 첫 심부름'을 읽은 딸은 그렇게 말했다. 다섯 살인 이슬이도 심부름을 하는데 여섯 살인 본인은 심부름을 못 했다며 투덜투덜. 입을 벌리고 약간은 멍한 듯한 표정으로 본인과 이슬이가 하나가 되어 책을 쳐다보던 딸은 소원대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심부름 장소는 아파트 입구의 마트. 웬지 불안했던 우리 부부는 둘째를 데리고 전방 50미터에서 뚫어져라 마트를 쳐다보며 딸의 심부름을 바라보았다. 책 속의 이슬이처럼 딸은 심부름을 했지만, 책 속의 이슬이 엄마처럼 되지는 못했던 나. 커가는 딸과 웬지 반대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했던, '이슬이의 첫 심부름'

끊임없이 만나고 싶은 너, 그림책!

사랑한다 너를.

모래의 여자를 읽고

만안도서관 주부독서회 담쟁이 채미애



모래의 여자

장수원

아베 코보 지음

끝없이 펼쳐진 모래언덕과 그 깊은 벼랑아래 들성들성 별집처럼 쑥 들어간 곳에 쓰러질 듯 한 목조 건물들이 들어선 모래 마을이 있다. 하루라도 모래 벼랑아래 쌓인 모래를 긁어내고 제거하지 않으면 독에 뚫린 조그만 구멍이 결국 독을 무너뜨리듯이 마을 전체를 무너뜨릴 상황이다. 그곳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외따로 떨어진 오지의 바닷가 마을이다. 바다 내음이 모래 바람과 버물어진 곳. 그들은 벼랑아래 드리워진 새끼줄 하나로 바깥세상과 연결되어진 채 하루하루 절박하게 살아간다. 하루의 휴식도 용납할 수 없다. 하루의 휴식은 하루의 식량이 없음을 뜻하고 삶이 끝나고 전체가 망함을 뜻한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형이다.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그는 학교 선생이다. 냉소적인 아내와는 피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 동료들은 주변의 다른 이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봐 조바심치고 질투하는 이들뿐이다.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이질감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상에 몰두한다. 곤충채집이다. 그는 새로운 곤충 종을 발견함으로써 그곳에나마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무의미한 삶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모래는 그를 매료시킨다. 고체인 모래는 무생물이지만,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물처럼 느껴진다.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열망을 닮았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란 명제 앞에서 이기심과 무지로 결합된 노인과 여인의 간교함 때문에 그는 모래벼랑에 감금된다. 그는 끊임없이 탈출하고자 했던 기존의 세상에 대한 염증 따위는 잊고 이곳으로부터 끝없이 탈출하고자 노력한다. 계속되는 실패. 이쪽 세상에서는 저쪽 세상을 동경하고 저쪽 세상에서는 이쪽 세상을 동경하는, 어느 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정쩡한 모습이 보인다.

모래벼랑 아래 노동과 여인만이 존재하는 세상은 어쩌면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모래는 그를 매료시킨다. 고체인 모래는 무생물이지만,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물처럼 느껴진다.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속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열망을 닮았다.

세상 같다. 원죄에 따라 끝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아담과 출산의 고통을 떠안은
이브 같다. 성이 물건처럼 되어버린 세상이나 인간이 먹어야 산다는 가장 기본적
인 욕망 따윈 잊을 만큼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양산하고 그
것의 부족에 갈증을 느끼는 세상이 아니다. 가장 태초의 본래적인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다.

그는 이제 모래 벼랑에 내려진 새끼줄을 타고 탈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그곳에 살고 있다. 매일 모래를 파내는 노동을 할 것이고 모래의 여자와 계
속 사랑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고,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목적으로 물
을 저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며 그 조그만 발명에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물질적으
로 풍요롭고 성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세분화된 물건들과 취미들과 생각들
이 넘치는 세상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삶이다.

그는 이곳 세상에서는 실종된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실종된 채로 모래 벼랑 속
에서 묵묵히 살아갈 것이다. 삶의 본질대로.



둔감력을 읽고

평촌도서관 독서동아리 목향회 이정희



와타나베 준이치 지음

와타나베 준이치의 둔감력을 독서회 도서 목록에 추천하면서 과연 이런 자기 계발서를 추천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글을 사랑하고 문학을 즐기는 회원들에게 둔감함이란 주제가 웬 말이란 말인가? 민감함이라면 또 몰라도, 거기다가 책을 구비하고 있는 도서관도 많지 않아 제대로 읽고 읽을 수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언제나처럼 회원 분들의 반응은 진지했다. 이야기의 방향이 책의 제목이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험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갔다. 회원 분들은 둔감함이 능력이며 재능이라는 작가의 주장이 신선하며, 둔감함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누군가의 둔감함으로 인해 상처받아야 했던 경험들과 자신들의 민감함으로 인해 겪어내야 했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대부분의 회원 분들은 자신을 민감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둔감한 능력을 키우고 싶어 했다. 그리고 바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둔감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도 했다. 그들의 마음이 십분 이해가 갔다. 글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사로잡는 작가들은 누구보다 섬세하고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순수하고 맑아 상대의 마음을 정확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섬세하고 여리기에 그들의 상처는 누구보다 더 굵고 깊은가? 그래서 대부분 둔감함이 능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긍정적이었나 보다.

자신을 둔감하다고 인정한 회원은 단 한명이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둔감하다고 주장한 그 회원조차도 둔감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 일수도 있으므로. 정말 둔감하다면 자신의 둔감함에 둔감

해서 둔감성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민하기 때문에 둔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고 할 때, 누군가의 둔감함이 피해를 끼친 것이라면 둔감함과 이기심은 같은 것으로 봐도 되는지를 물어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했다. 이기심과 둔감함이 결합한 경우라고 했다. 자신을 위하여 상대에게 둔감해진 것이라고.

누군가의 둔감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해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둔감함의 반대급부에 있는 예민함은 배려나 공감능력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두들 아니라고 했다. 예민함 또한 지나친 자기애와 합쳐지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문을 던졌는데 현답이 왔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예민함과 민감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 능력은 성공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일본 문단에서 인정받은 저자 또한 평생 누구보다 민감한 감수성의 덕을 많이 본 작가일진대 말년에 뜬금없이 둔감함을 찬사하고 능력으로 인정하는 책을 낸 것은 아이러니다. 아마도 자신에 비하여 둔감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심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부러워 한 듯하다.

잘은 모르겠으나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지 간에 무언가에 대한 예민함이나 둔감함은 생존을 위한 선택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생물이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하는 동안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정된 시간과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요즘처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잡하고 빠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한 자신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하여 소모적인 에너지를 줄이는 능력이 바로 둔감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번 책과 토론은 평상시에 나를 고민스럽게 했던 나의 예민함과 둔감함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는 나의 예민함과 둔감함 모두를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민감하다. 그저 둔감해 보일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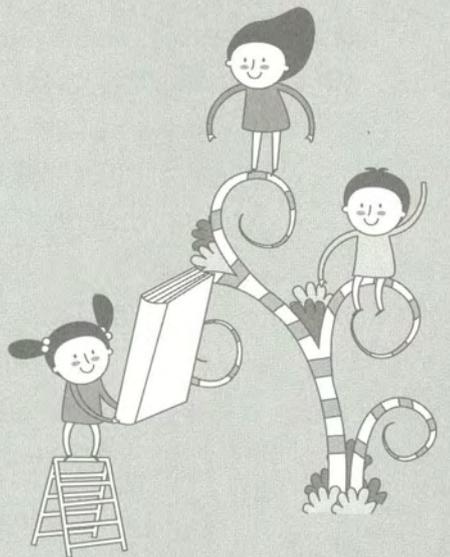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예민함과 민감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 능력은 성공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주부독서회원 글모음'

* 수필



사춘기

만안도서관 다슬희 문인선

일이 시작된 건 작년 이맘때 쯤 인 것 같다.
 딸아이가 전에 없이 짜증이 늘더니 짜증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하루는 딸 방이 꼭 도둑맞은 뒤 꼴을 하고 있기에 날 잡아서 서랍부터 옷장까지 말
 끄하게 정리를 했더랬다.
 나름 하루 종일 수고하였건만 내게 돌아온 건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어미인 날 향
 한 맹공격이었다.
 “엄마는 매너도 없어? 왜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거야?”
 “물건들을 찾을 수가 없잖아. 아이씨, 다 망했어.”
 주인? 남의 방? 허락? 뭐가 망해?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혀서 나도 딸에게 몇 마디 퍼부었다.
 “네가 방 꼴을 귀신 나올 것 같이 해 놓고 다니니까 그렇지.”
 “내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사주는 옷 입고 다니면서 주인은 무슨 주인
 이냐.”
 “그리고 너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말을 할수록 딸아이에게 배신감이 커져서 나의 분노도 극한으로 가고 있었다.
 딸은 씩씩대고 울먹이더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 방이니까 나가! 나가라구!”
 하면서 나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곤 방문을 “꽝”하고 닫더니 잠가 버렸다.
 그 분이 온 것이다.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사”, “춘”, “기”
 아직 그에 대한 대책도 맷집도 없었던 나로서는 매일 매일이 당황, 혼란, 분노,
 배신이 째뽕으로 뒤섞인 날들이었다.
 그 전까지는 명랑만화 주인공처럼 사랑스러운 눈빛이더니, 요 근래에는 일단 눈을
 내리깔고 가자미도 아니면서 옆으로 흘기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말투도 항상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 하다가도 다음날 수틀리면
 “엄마, 내 친 엄마 맞아?” 요런다.

딸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고 서운하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겁이 많아 혼자 자는 걸 무서워하던 아이는

“우리 다 같이 자자. 밤새 같이 이야기도하고 좋잖아.”

라며 아빠에게 애교를 떨었었고 딸의 무서워서 그러는 속내를 알면서도

“그래, 그럼 오랜만에 가족이 비좁은 침대에서 다 같이 자 볼까?”라며 은근 좋아했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무서우면 우리 다 같이 자자.”라고 먼저 제의하면

딸은 건조한 말투로 단칼에 “아니.” 그러다. 그럴 때 남편의 얼굴엔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게 안 돼 보여서 “기집애, 아빠한테 좀 친절하게 말할 수 없냐?” 라고 내가 몇 마디 했더니 “내가 뭘.” 하며 화를 내더니 예의 ‘방문 황 달고 문 걸어 잠그기’ 신공에 들어간다.

이러다가는 엄마지만 딸이 미워질 것 같고, 정말 가끔은 흠씬 패주고 싶다는 생각도 불끈불끈 샘솟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저녁마다 포털 사이트에 ‘사춘기 딸과 대화하는 법’, ‘사춘기 자녀 대처법’을 검색하고 인터넷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보았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과 오랜 상담 끝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딸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였으며 그 나이 또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겪게 되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대처법은 도를 넘지 않으면 그냥 두라는 것,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켜봐 줘야 한다는 것,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타인의 경험들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견디고 있다. 딸에게는 “니가 불끈불끈 화가 나는 건 호르몬 탓이야. 이건 다 호르몬 탓이야.”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위안을 해 주고 있다.

저러다 어느 날에는 갑자기 말짱해져서는

“엄마, 내가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그치?” 하는 날도 오겠지, 오겠지, 비바람 폭풍우 끝에 맑은 날 오~겠~지?

“엄마, 내가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그치?” 하는 날도 오겠지, 오겠지, 비바람 폭풍우 끝에 맑은 날 오~겠~지?

키는 커야 한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웃자라다’라는 말이 있다. 보통 이상으로 자랐으나 연약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큰 키를 부르짖는 사회에서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웃자라 있다고 생각한다. 요새 애들이 키가 대체로 큰 편이라 180cm는 넘어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는 성장클리닉, 성장주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유행시켰다. 내 키는 162cm가 조금 넘는다. 다행히 나는 사회적 범위 내에서(?) 여성의 보통 키 정도였기에 특별히 불편함을 겪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키가 나보다 10cm 정도 작으시다.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출근 시간에 한 명이라도 사람을 더 태우려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서 사람을 밀어주는 ‘푸시맨’이 있던 시절이라) 때로 호흡곤란이 왔던 때를 제외하고는 불편한 적이 없었다고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옛날에는 키 작은 것이 흠이 아니었는데 요새 와서 유난히도 키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것 같으면서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솔직히 유난히 키가 작은 남자를 보면 눈이 간다. ‘직접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한가한 소리 한다’라고 누군가는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수록 키를 약점으로 생각한 탓에 반대로 다른 매력을 갖고 답는 경우가 꽤 있다. 실제로 키라는 것은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키도 그와 같은 것일 뿐이다.

누구든지 어떤 이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의 가능성을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만약 우리 집 아이가 키가 작아 속상하다고, 왜 이런 유전자를 물어주었느냐고 따져 물으면 ‘각자에게는 모두 다양한 삶이 있는 것’이라는 말로 찬찬히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성급하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눈에 띄게 키를 크게 해준다면 임시방편이야 되겠지만 웃자란 나무처럼 연약한 상태를 부를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아이가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부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아이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차별받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는 키와는 상관없이 모두 어우러져 살아야가하는 사회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자. 우리는 현재 키에 집착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경향과는 다른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내가 도를 닦았거나 성인(聖人)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약자를 돕는다면 찬성하고 싶다. 그럴진대 키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키가 작은 사람은 남을 돕지 못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만약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가 될 것이 아니라면 키에 대한 강박을 제발 내려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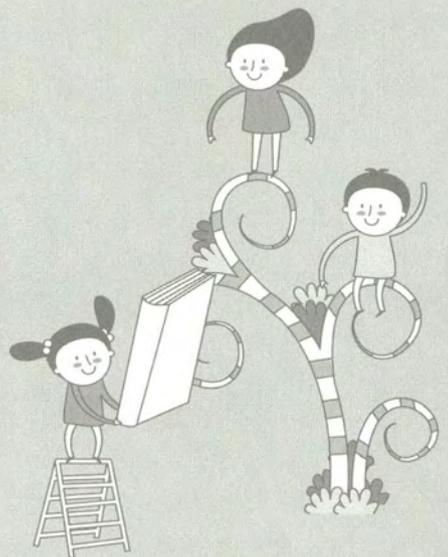


우리는 현재 키에 집착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이들을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경향과는 다른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주부독서회원 글모음'

* 시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만안도서관 다솔회 박무영

겨울밤 소복소복 내리는 눈송이가
그렇게 이쁜 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늘 걱정스러운 개구쟁이 이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늘 투명하고 표현이 서툰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별일 없이 무탈하게 보낸 하루하루가
감사한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멀리 있어 소홀했던 친구가
그리워짐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미안한 날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잦아든 아픔
 날선 아픔을 시작으로
 조금씩 아물다가
 다시 아팠던

모든 생을 까맣게 잊을 때쯤
 생일이 돌아온다.

반복되는 일상 속
 곧 잊힐지 모른다.
 곧 잊혀야 한다.

망각의 축복 속에
 초를 밝히고 나는
 다시 타들어간다.

다른 관심이 되었을
 또 다른 심장이 되었을
 흘러가버린 시간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구였다면
 당신은 더 즐거웠을 것을

나는 너무도
 기쁘게 태어났다.
 당신의 아픔을 두고



고수는 말이 없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장인영

자랑은 세 가지 위험성을 내포한다.

자랑을 듣고 있는 자가
이미 한창 자랑 중인 자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
둘 다에게 시간낭비다.

자랑을 듣고 있는 자가
이미 자랑에 심취한 자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이룬 경우
대개는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속으로 말하는 자를
심하게 조롱하고 있다.

자랑을 듣고 있는 자가
이미 자랑을 시작한지 한참 지난 자의 말에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는
말하는 자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적의를 품게 된다.

당신은 이래도 자랑을 하고 싶은가?



늦은 밤

비산도서관 마음독서회 문명란

어둠이 짙게 깔려
불빛들이 찾아오는
늦은 밤이 참 정겹다

차분히 가라앉은 밤공기
마음을 흔드는 실바람
어둠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
외로움을 벗 삼아
적막함이 마음을 적신다.

달빛도 희미한 거리
가로등만이 쓸쓸하고
그사이로 혹시나 누군가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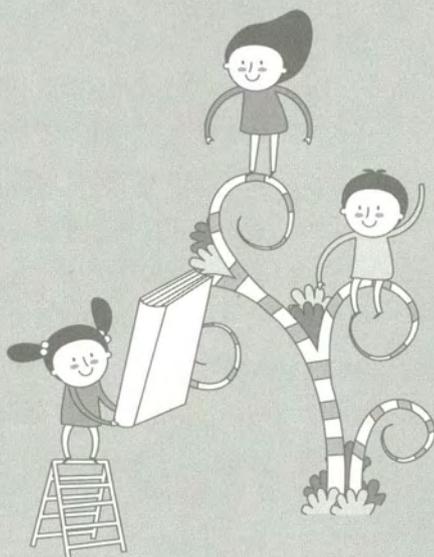
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겠지 기다려진다.
늦은 밤이 참 좋다





'어린이독서회원 글모음'

독후감



사람을 품어 나라를 세우다

안양부림초등학교 4학년 심준형



이규희 지음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은 왕건의 고려 건국 공산전투에서 위기를 맞은 왕건은 그의 생명은 지켰지만 분신과도 같은 신승점 부하를 잃다

포악해진 궁예를 몰고, 왕이 된 왕건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서라벌에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왕건은 산이 깊고 험한 곳인 공산에서 견훤부대를 맞아 싸우게 된다. 하지만, 견훤 부대는 이미 모든 산세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각의 골짜기와 길을 이용하여 벌써 매복하고 있었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싸움이었다. 이 때, 신승점은 싸움에서 질 것을 예견하여 왕건의 옷과 자신의 옷을 바꾸어 입고, 후백제를 다른 곳으로 유인한다. 왕건은 이틈을 타서 전쟁터를 잘 빠져 나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신승점은 후백제에 의해 목이 잘리고 만다. 왕건에게 돌아온 신승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다. 공산전투의 패배는 왕건에게 수장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왕건은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잃은 슬픔에 비록 부하였지만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또한 황금으로 된 두상을 만들고, 그의 무덤이 도굴될 것을 염려하여 무덤을 똑같이 하여 3개를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한 신하는 “어떤 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슬퍼하며 저리도 울었을까요? 직접 신하의 뒷자리까지 봐주는 임금이 또 있을까요? 어서 빨리 이 슬픔에서 나와 강력한 고려를 세웠으면 좋겠어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였다.

그 후, 왕건은 다시 후백제와 고창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전쟁을 치루고, 이 싸움의 승리자는 왕건이 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이 왕건에게 백기를 들고 나오면서 왕건은 통일신라와 달리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당당하게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다. 고려를 세우던 날, 왕건은 하늘을 보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준 신승점 장군이 매우 그리워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의 책사는 전하고 있다.

바다의 왕 장보고

만안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송혜민



곽옥미 지음

〈상소문 형식의 독서 감상문〉

청해진을 다시 세우셔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진 문성왕께 올립니다.

저는 청해진에서 객주를 운영하는 송혜민입니다. 지금은 비록 허물어 가는 국밥집으로 변했지만 장보고 장군이 건설한 청해진으로 저희 객주는 사람이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국밥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열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국밥을 열 솥을 끓여도 모자랄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루에 국밥 한 솥도 팔지 못하고 문 닫을 때가 많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 중에 왜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배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서 당나라, 또는 다른 나라와 해상무역을 할 때 험난한 바닷길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적들 때문에 물건을 약탈당하고, 사람들도 다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의 청해진이 들어서면서 안심하고 해상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이 없어지면서 우리 물건은 해적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서 이제는 청해진으로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며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줄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나라에 내는 세금도 제대로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동네 객주는 문을 닫고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다시 맘껏 장사를 하고, 서역상인들도 많이 드나들어 이곳 백성과 상인들이 전처럼 번창할 수 있도록 청해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해상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던 청해진이 다시 세워진다면 멀리 돌아갔던 서역상인들이 다시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돼서 이곳을 떠났던 상인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저의 청을 받아주시고, 부강한 신라의 군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856년 8월 청해진에서 객주를 운영하는 송혜민 올림

양파의 왕따 일기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일초등학교 4학년 박 준 은



이제부터 '양파의 왕따 일기' 이야기를 해줄게.

새로 전학 온 미희라는 아이가 이끄는 양파가 그때는 인기가 많았어. 많은 아이들이 양파에 들고 싶어 했지. 이 책의 주인공인 정화도 양파에 들어가서, 미희랑 친해지고 싶었어. 내가 정화여도 인기 많아 보이는 양파 같은 그룹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나도 인기가 많아질 테니까.

문선이 지음

그 후로, 정화는 미희 대신 혼나주고 미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환자 이발사인 아빠가 의사라고 거짓말을 쳤어. 그래서 마침내, 양파에 들어왔지. 하지만 양파에 들어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양파에 들어오니까 친구들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지. 그리고 미희 말고 다른 아이들은 미희의 꼭두각시가 되어 미희가 시키는 것은 모두 해 줬지. 내가 정화라면 나는 그때 '나는 미희의 꼭두각시가 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닌데...'하며 살짝 후회했을 것 같아.

결국에 아이들은 미희의 실체를 알아내고 많은 아이들의 비난 속에서 양파는 없어지고 말았어. 하지만 나는 미희가 마음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미희는 단지 부모님이 안 오시니까 친구들을 곁에 두기 위해 양파를 만들었어. 마법의 주문과 물건들은 단지 미희가 우리 곁에 있기 위한 발버둥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 책의 미희가 우리 반의 장난꾸러기 친구들이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는 힘들지만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거야. 이제부터라도 미희 같은 아이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어때?

산왕부루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해오름초등학교 4학년 **임 영 빈**



박윤규 지음

이 책은 형이 재밌게 읽는 것을 보고 따라 읽게 되었다.

산왕부루는 2권짜리 한글 장편소설이다.

지리산의 마지막 호랑이 부루는 겁쟁이었다. 무쇠갈퀴(흑곰)와의 싸움에서 지고 한라산 흰 사슴 가락에게 가서 힘과 용기를 배운다. 아버지의 유언과 다른 동물을 지키기 위해 산왕이 되기로 결심한 부루는 휴전선을 넘어 백두산까지 가며 더 강한 호랑이가 된다. 그래서 무쇠갈퀴와의 싸움을 이기고 얼음 눈의 반란을 막고 마침내 산왕이 된다.

나는 부루가 무쇠갈퀴와 싸울 때 달빛을 등지고 눈을 비추는 장면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두산 호랑이를 강릉수목원에서 만난 것이 떠오르는데 우리에게 갇힌 백두산 호랑이가 불쌍해서 슬펐다. 나는 구름사다리 3칸 건너뛰기를 연습할 때 처음은 두려웠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성공한 적이 있다. 그래서 힘, 용기가 있으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너 최고의 고양이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송 신 영



후지노 메구미 지음

에투알에게.

에투알 안녕? 난 신영이야.
 넌 참 대단해. 너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
 아름다운 고양이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지.
 피부병에 걸려서 버려졌지.
 그렇지만 착한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야.
 그리고 꿈을 위해 쥐잡기 일인자와 함께 떠나다니 놀라워.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도 보여줘, 쥐 잡는 거.
 할아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도 해. 에투알~~~~~
 안녕..

10분의 시간을 파는 가게

신기초등학교 5학년 정 지 은



이나영 글, 윤정주 그림

세상에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을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그런 가게가 정말 있다면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시간을 사고 싶을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여주인공, 윤아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에게 국제중 소리만 들으며 오직 공부밖에 안 해온 5학년짜리 키 작은 소녀이다. 공부환경이 좋은 강남학교로 전학 와 친구도 없이 학원을 다니며 바쁘게 살아온 윤아는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 2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엄마의 말씀을 매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인지 일등하고 똑똑한 것만이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10분의 시간을 파는 시간가게를 보고 그곳에서 시간을 산다. 하지만 세상의 공짜는 없는 법! 그 가게의 주인은 시간을 사는 대신 윤아의 행복한 순간을 받는다. 하루에 한번 씩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 후, 시계의 버튼을 누르면 윤아를 제외한 모든 세상이 돌처럼 멈추어 버린다. 와~! 신기하다. 나도 이런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 그 초록색 시계를 사게 된다면 나는 이걸 매일 평일아침에 사용 할 것이다. 학교에 가는 평일 아침이 되면 자명종 시계 소리보다 더 듣기 싫은 엄마의 단잠을 깨우는 괴로운 소리가 들려온다.

“찌~은, 일어나서 학교가야지~ 벌써 30분이 지났네~” 에휴~~

엄마께서는 최대한 예쁘고 다정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날 깨우시지만 나에게는 그 목소리가 나의 달았던 꿈을 깨뜨리는 무시무시한 마귀할멈 목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일어나기 전 조금이나마 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럼 피곤도 싸~악 가지겠지!

윤아는 수학셈이 득실거리는 연산학습지에, 글이 지렁이처럼 그어져 있는 영어책과 두툼한 문제집들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시험만 보면 점수는 마음대로 나오질 않으니..... 그래서 윤아는 자기한테만 주어진 소중한 시간 10분을 시험시간에 전교 1등인 수영이의 시험지를 베껴 점수가 잘 나오게 한다. 꼭 1등을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엄마는 윤아가 조금이라도 시험을 잘 보면 학습지나 과외 1개를 더 늘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항상 어디를 가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1등만 사람대접을 해주는 걸까? 공부는 못해도 다른 재능이 숨어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가끔씩 시험을 볼 때나 어떤 대회에 나갈 때 윤아 엄마처럼 막 직접대고 꼭 잘해야 된다고 부담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 엄마께서도 은근히 나에게 기대감을 주어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하~ 정말 사람들의 공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 저 멀리 학원가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많은 학원들은 마치 공부 잘하는 애들을 찍어내는 커다란 공장들 같다.

그런데 난 윤아가 말하는 1등이 최고의 기쁨은 아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윤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윤아야, 진정한 행복은 주인의 취향대로 움직이는 DIY가구처럼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엄마가 짠 계획표대로 해서 꼭 1등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행복이란 네가 만드는 거야. 네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 그리고 너의 시간은 네가 주인이 되어 써보면 어떨까?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날까지 기다릴게. 안녕~”

반항과 방황

호성초등학교 5학년 오혜연



배유안 지음

〈스프링〉이라는 책은 동준이라는 아이의 시점으로 하여 펼쳐지는 파란만장한 청소년 소설이다. 이 책에서는 동준이 그의 형, 성준이를 잃게 되며 연극 동아리와 사랑에 힘을 모두 쏟아 붓는 이야기를 세세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하여서 초등학교 5,6학년 정도가 되면 공감할 수 있게 쓴 것 같다. 이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보았지만, 책과 대화하며 읽어본 것은 독서교실을 다니고 나서부터였다. 나라면, 왜? 등 책과 소통하고 읽으니 평소보다 퍽 재미있었다. 인물의 성격도 책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책과 소통함으로써 더욱 공감을 할 수 있었다.

〈스프링〉이란 책은 주인공이 형을 잃은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솟구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작가는 주인공인 동준이로 그렇게 폭주를 하여놓고 또 금방 절제하여, 그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의 엄마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작가의 훌륭한 몰입도를 알 수 있었고, 작가의 몰입도 덕분에 읽는 나도 순식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렇듯 내가 몰입을 하면서, 나도 동준이와 같이 성장의 과정을 느끼며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의 명언은 결코 '어른을 용서하라'이다. 주인공이 이 말에 생소한 충격을 받았듯, 나도 이 말에 충격적인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어른을 용서하라? 이 책에서 어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을 한다. 하지만 어른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어른들의 실수를 지금은 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나는 이렇게 〈스프링〉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끝내려한다. 책에 나오는 듯이, 방황과 만항은 우리의 특권이다. 미래의 우리들은 이 방황과 특권을 어느 방법으로라도 잘 써먹고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이 책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며, 난 바람처럼 사라지겠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달안초등학교 4학년 맹주영



미하엘 엔델 지음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 미하엘 엔데는 정말 책을 잘 적어서,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마법의 설탕이 좋은 설탕일 줄 알았다. 그런데 제멋대로인 엄마, 아빠를 작게 만드는 설탕조각이었다.

제일 조마조마 했던 장면은 엄마, 아빠가 점점 작아져서 고양이한테 잡아먹힐 뻔 했던 장면이었다.

가위로 쫓아내서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만약 내가 마법의 설탕 조각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을 작게 만들지 않고, 엄마가 내 말을 더 잘 듣게 만들던가 아니면 엄마를 조종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미하엘 엔데처럼 책을 잘 쓰고 싶다.



내 이 돌려줘

부흥초등학교 1학년 박태희



조정현 지음

유진이가 정민이랑 놀이터에서 이예다 긴 줄을 묶고, 빠다 귀도 달았다. 또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이것을 물어렴.” 했다. 그래서 강아지가 뛰어가서 이를 뺐다.

내가 만약 엄마가 그렇게 이를 빼면 겁도 나고 무서울 것이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기분이 좋아 진다. 언젠가 유치원에서 빵을 먹었는데 이가 빠졌다. 참 신기했다. 치과에서 이를 뺐 것도 괜찮지만 먹으면서 이가 빠지는 것도 기분이 좋다.

만약 이가 다 빠지면 놀림을 받을 것 같다.

무슨 놀림이라면 “이 빠졌대요, 이 빠졌대요” 다. 그러니 정말 이가 다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젠는 내가 혼자 이를 뺐 적도 있다. 빼기 전에는 무섭기도 했다.

헌 이는 호랑이가 꿈속에서 가져가서 먹을 것 같다.



도전의 리더십 조앤롤링

(도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롤링)

샘모루초등학교 5학년 이태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해리포터'를 쓴 조앤롤링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조앤롤링에 대한 책들도 많이 출판되고 있고 이 책 또한 조앤롤링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 것은 조앤롤링도 필요했고, 나에게도 꼭 필요한 '꿈'이다. 조앤롤링은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았다. 그녀는 책 읽는 것을 즐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느낀 즐거움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꿈의 씨앗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조앤롤링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좌절하며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꿈'을 스스로 발견하여 가슴에 품고 키우고 있었다.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씩 나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싹을 틔운 꿈은 그녀에게 등불이자 등대가 되어주었을 것이다. 조앤롤링은 무사히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왔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마법 세계를 선사하였다. 조앤롤링의 가슴속에 심어졌던 꿈의 씨앗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널리 퍼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사람에게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꿈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열심히 살게 해준다. 나 또한 이 책을 읽으며 막막하게 느껴졌던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나의 꿈은 무엇인지,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떠올려 보게 해 주었다. 나는 스스로의 꿈을 위해 꿈의 가치와 보람을 느꼈다.

꿈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열심히 살게 해준다.

아라비아 숫자

(도서: 수학의 역사)

안양부흥초등학교 5학년 조우영

나는 방학과제 중 5학년 권장도서 읽기가 있었는데 그 5학년 권장도서에 이 수학의 역사책이 있었는데 표지가 재미있어 보여서 이 책을 골라 일게 되었다. 이 책은 그림이 많지만 글도 많아서 그림을 보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글을 보면 이해가 돼서 아주 좋다. 이 책은 수학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인데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 중 내가 감동 받은 것은 “아라비아 숫자”이다. 옛날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인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손가락, 발가락을 이용하여 몇 개 인지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가락 10개를 많이 사용해서 10을 넘어서면 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 냈다. 그 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많이 썼다. 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든 사람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 왜냐하면 옛날에 손가락으로 몇 개인지 세는 게 불편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 그 “아라비아 숫자” 덕분에 여태까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생활에서도 거의 모든 곳에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시계가 있고, 온도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게나 길이를 재는 거의 모든 것에는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숫자”와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로마 숫자”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로마 숫자”보다 “아라비아 숫자”가 더 편리한 것 같다. 왜냐하면 “로마 숫자”는 I, IV와 같은 기호지만 “아라비아 숫자”는 1, 2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로마 숫자”보다 “아라비아 숫자”가 더 편리하다고 난 생각한다. (내 생각이므로 아닐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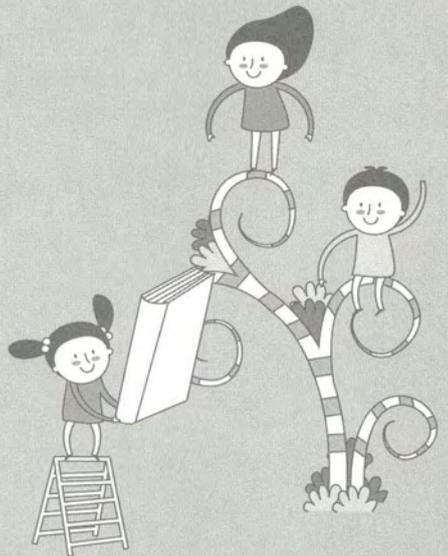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시계가 있고, 온도계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게나 길이를 재는 거의 모든 것에는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독서회원 글모음'

시



휴대폰아, 그만 자자

안양부흥초등학교 4학년 박재한

시끄러운 엄마 휴대폰
한밤중에 울린다.
카톡 카톡

그 소리에
꿈나라에서 퇴장했다.

다시
입장하려는데
카톡 카톡

내 꿈나라가
그립다.

휴대폰아
그만 자고 내일 놀자.
카톡 카톡



누가 해 줄 수 있나요?

희성초등학교 6학년 강경빈

뽕뽕~

지구가 땀을 흘리는 소리,

지구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답다고요.

사람들도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답다고요. 에어컨을 켜야겠다고요.

사람들 더위는 에어컨이 식혀주는데, 지구의 더위는 누가 식혀줄 수 있을까요?

누가 지구의 땀을 닦아줄 수 있나요?

똑똑~

아주 아주 커다란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와르르~

북극곰 집이 무너지는 소리

누가 북극곰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저요, 저요~

에어컨을 끄는 아이

계단으로 오르는 아이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아이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나무

안양양지초등학교 김 다 윤

나무는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몸은 굴뚝만큼 굵고
몸은 아빠 수업처럼 까칠까칠하고
푸른 숲에 많은 푸른 나무



우리 언니에 대하여

안양양지초등학교 송 예 진

잔소리 폭탄 언니.
싫어하는 거를 계속하는 언니
그림 천재 언니
웹툰 박사 언니
간지럼 잘 타는 언니
우리 언니 꿈은 웹툰 작가



벨로키랍토르(랩터)

석수초등학교 정민준

랩터는 무시무시한 발톱, 이빨, 푹 튀어 나온 발톱을 가졌네.
 빛이 나는 눈, 좋은 뇌도 가졌네.
 다리가 좋아서 타조보다 2배나 빠르네.
 꿈에 만나고 싶지 않네.
 암컷은 “히야! 히야!” 수컷은 “흐알, 흐알” 이라는 소리를 지르네.
 보통 소리는 “어우, 어우, 헐, 헛, 허, 얼, 엇, 어, 어, 어, 히 야 야 야 야 야!”
 현재로 있으면 랩터는 식인 공룡이네.

초등학교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조나영

땡~ 땡~ 땡~
 수업이 시작한다는 종이 울리네.

땡~ 땡~ 땡~
 쉬는 시간이 시작한다는 종이 울리네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주 시끌벅적 하네



나만의 길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일초등학교 4학년 **박준은**

우리 학교 앞에는
나만의 길이 있어요.

등교 할 때는 열심히 하라고
햇살이 '힘내, 힘내' 속삭이고
하교 할 때는 수고했다고
나무들이 쓰담쓰담 토닥여 주지요

기분이 좋을 때는
꽃들이 방긋방긋 웃어주고
화나고 슬플 때는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어루만져 주지요

먹구름으로 덮힌
나만의 길이 쓸쓸한지 아파 하네요
이제는 내가
힘내 속삭이고 쓰담 토닥여 주고
방긋 웃어도 주고 호~ 불어볼래요

함께 걸어보실래요?
나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비 오는 날

비산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안양중앙초등학교 3학년 김 나 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주르륵 주르르륵

비가오면
알록달록
예쁜 우산 꽃들이
피어난다.

비가 그치면
알록달록
예쁜 우산 꽃들이
지고 만다.



소중한 일곱 동무

호계도서관 어린이독서동아리 안 윤 서

연필 색시 글씨 쓰고
지우개 총각 틀린 글자 지우고
자 각시 몇 센티, 몇 밀리미터, 몇 미터인지 재고
가위남자 싹둑싹둑 자르고
풀각시 끈적끈적 종이 붙이고
테이프 할미종이 연결하고
목공풀 총각 떨어진 물건 붙일라
모두모두 모여라
나의 소중한 일곱 동무야



점자와 시각장애인 그리고 나

호계도서관 어린이독서동아리 채혜량

세상에 점자가 없었다면
시각장애인은 불편했을 거야

루이 브라이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시각장애인은 힘들었을 거야

내가 만약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우리 가족도 힘들고 나도 불편했겠지?

루이 브라이 아저씨 덕분에 시각장애인은
조금이라도 편한 걸 거야

아무리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난 감사해야하고, 본받아야 해



논다

달안초등학교 4학년 맹주영

논다는 뜻은
신난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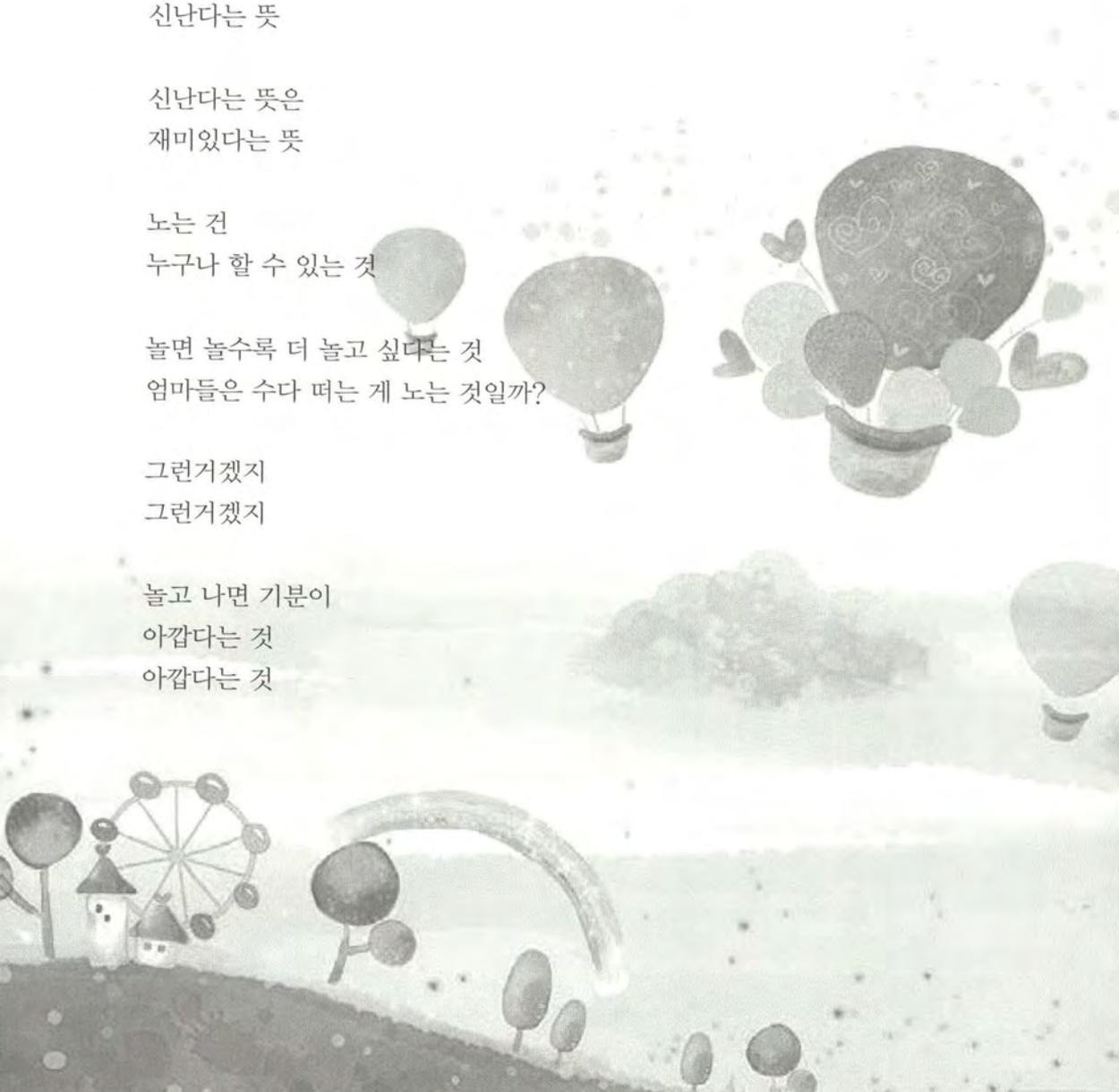
신난다는 뜻은
재미있다는 뜻

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놀면 놀수록 더 놀고 싶다는 것
엄마들은 수다 떠는 게 노는 것일까?

그런거겠지
그런거겠지

놀고 나면 기분이
아깝다는 것
아깝다는 것



우리집 도깨비 방망이

달안초등학교 3학년 홍 나 연

우리 집 리모컨은 도깨비 방망이
 버튼 하나 누르면
 아빠 좋아하는 영화가 똑딱!
 우리 집 리모컨은 도깨비 방망이
 또 다른 버튼 누르면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가 똑딱!
 우리 집 리모컨은 도깨비 방망이
 또 다시 버튼 누르면
 내가 좋아하는 어린이 채널이 똑딱!
 우리 집 리모컨은 도깨비 방망이



내 친구

범계초등학교 4학년 윤 상 현

언제든지 말할 것이 있으면
 달려가 말하는
 상담실

언제든지 말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해주는
 VIP 상담실



하늘

화창초등학교 4학년 신은성

하늘은 매일 틀린
우리의 감정이다

아침엔 밝고 즐거운 감정
점심은 지루하고 나른한 감정
저녁은 화나고 짜증나는 마음

하루 종일 감정을 알려주다
밤엔 쿨쿨 눈을 감고 쉰다

파란색 하늘

화창초등학교 4학년 조현정

비오면 가려지는
파란색 하늘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면서
비가 그치길 기다린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하늘이 나온다

나는
파란 하늘이 좋다

밖에 나오면 파란하늘이
제일 먼저 반겨준다

항상 야외에서는 어디에서도
하늘 바다를 볼 수 있다



안네, 키티의 절친

관악초등학교 5학년 최은서

안네
노란 별 달은
안네

불쌍한
그녀와 그녀의 언니, 엄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인의 상징
노란 별을 단
안네

영영
돌아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키티를
만난
안네

그녀의 아버지
안네의
일기를
받고 슬퍼했다네.

활기차지만
아직은 사춘기인
안네

그녀의
가족과 은신처 식구들
모두 다
끌려갔네



아테나의 위기

비산초등학교 5학년 장민예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은
올림포스 산의 12명의 신들

그 중 가장 멋진 태양과 음악의 신
아폴론의 고민

그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의 원인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의 꿈속으로
들어간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녀의 고정관념 그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아테나는 노력한다.

아테나는 크산티페의 꿈속으로
들어갔네

크산티페는 멋진 꿈을
꾸고 있었지

자신이 여왕이 되어 평화로운
꿈.

남편의 지겹고 지겨운
철학 소리를 안 듣고 사는
평화로운 꿈

아테나는 그 꿈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설득하려 하였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게을러빠진 실업자나 될 뿐이에요!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죠!” 크산티페는 이리 말했네.

결국 아테나는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고
아테나는 결국 크산티페의
소원을 들어주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소원을 들어줄 테니 스파로네를
괴롭히지 말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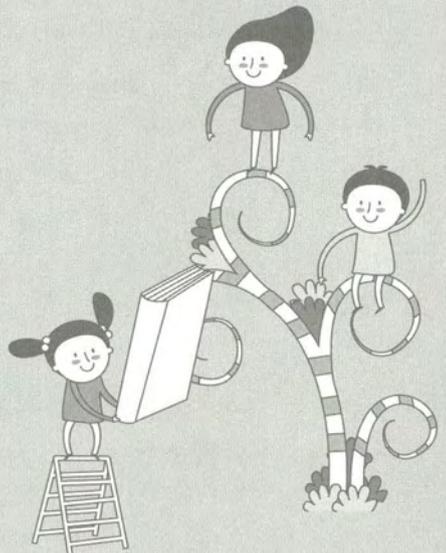
그리고 고민을 해결한 아테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다네.





'청소년독서회원 글모음'

* 독후감



레오나르도 다빈치

벌말도서관 이용자 차정현(안양외고 1학년)



다이앤 스탠리 지음

어릴 적부터 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좋고 존경스러웠다. 어릴 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분을 존경한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가장 부럽고 닮고 싶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의 작품을 남겨 유명한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에어컨, 잠수함, 스프링으로 가는 차, 땅을 고르는 기계, 자동으로 고기 굽는 꼬챙이 등 여러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가이자 과학자였다.

그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정한 틀에 얽매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항상 무엇이나 계속 생각하고 직접 도전하고 정해진 틀을 벗어나려고 애썼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사람을 제대로 그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삼십 여명의 인체를 해부해가며 과학자 못지않은 열정으로 관찰했고 그 과정 중에 해부도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냈는데 이 방법은 아직도 쓰이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뉴턴보다 더 일찍이 운동 제1법칙을 알아냈었던 것 등 과학 분야에도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제껏 이분처럼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도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것보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일정한 틀,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계속 의문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때로는 엉뚱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도 도전하고 부딪혀보며 실패도 많이 겪어보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것처럼, 혹은 그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물이 될 수 있을 꺼라 확신한다.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는 것을 깨달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뿐만 아니라 에디슨, 아이슈타인, 뉴턴 등의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바로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이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창의성을 중요시 하는지 알았다. 나 또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역시 책은 여럿이 같이 보아야 그 맛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구나!
또한 같이 나눌 때 다양한 삶과 어우러져 풍성해지는 거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벌말도서관 이용자 차정현(안양외고 1학년)



최재천 지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른다.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1분도 안되는 시간동안 현재와 같은 문명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해도 결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쉽게 사회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은 이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돌고래의 사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기잡이배의 그물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동료 돌고래를 보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물을 물어뜯거나 사냥을 방해해서라도 구해주려 한다. 또 몸이 불편하여 물위로 올라가 숨을 쉴 수 없는 동료를 위해 친구를 등에 업기도 한다. 이를 보면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절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환경문제 또한 그렇다. 환경이 이렇게 훼손된 것은 다 누구 탓일까? 바로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 때문이다.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수가 줄고 심지어 멸종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 인간만을 생각하고 우리만 더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실제로 동물의사회를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예로 침팬지의 사회에서도 '라인'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야 권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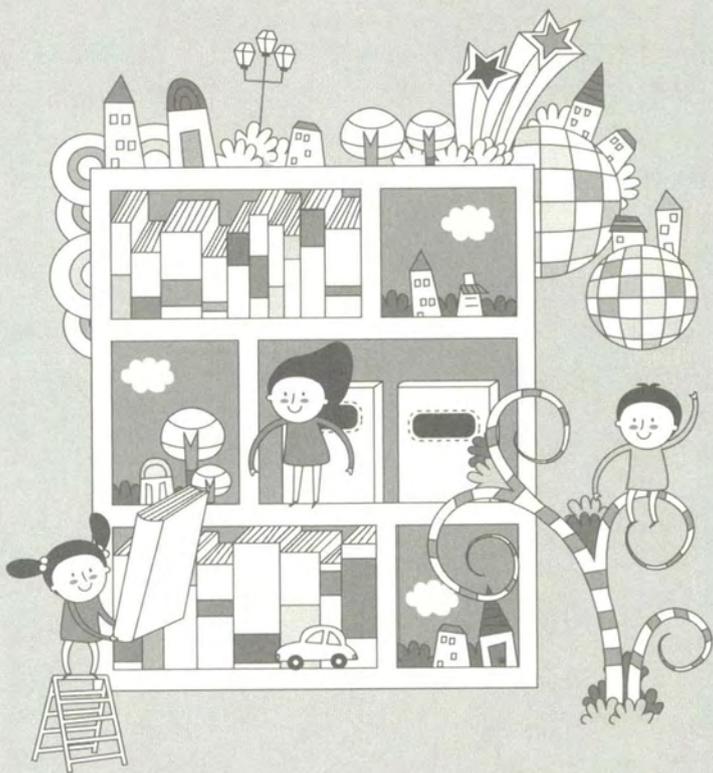
잡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인간사회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놀라울 정도다.

또한 우리가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거미의 모성애도 우리 인간 못지않다.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새끼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모성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은 생명체이다. 그러니 우리만 생각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등 이기적인 행동을 멈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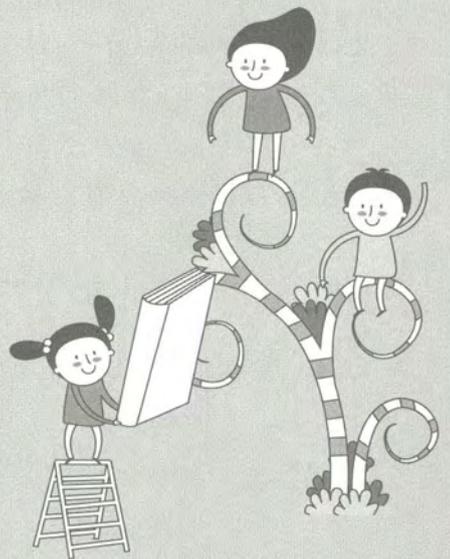
나 역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물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의 제목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환경문제 또한 그렇다. 환경이 이렇게 훼손된 것은 다 누구 탓일까?
바로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 인간 때문이다.





* 도서관 체험후기



꿈꾸는 석수도서관 다문화교실

- 결혼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 -

한국어교실 강사 문경실

결혼 이주여성들과 사계절을 공유한 시간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시간의 흐른만큼 제자들에게 관대하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잔소리가 늘어가는 선생님이로 탈바꿈합니다. 이런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의 제자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발췌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또 다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보려합니다.

“한국어 배움의 중요함”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2남 4녀의 둘째 딸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에 온지도 어느덧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할 시기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준 곳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한국 지인들과 만나면서 체계적인 한국어를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석수 도서관 다문화 교실이 생겨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국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공부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커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합니다. 주변에 외국 친구들에게 돈을 먼저 벌지 말고 한국어 공부 먼저 한 다음에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언어에 대한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토익 4급을 목표로 두어 꼭 취득 할 것입니다.

“고향의 초록나무와 한국의 단풍”

베트남은 북방과 남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남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섯 시간 가서 호치민에 도착 한 뒤에 치룩이라는 고향 마을 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아홉 시간을 가야합니다. 치룩 마을은 적도의 부근이

라 참 덥고 습한 곳입니다. 한 낮의 온도는 40도가 넘어가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주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가끔 한국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나무들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낙엽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나무들이 모두 병들어 죽을까!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풍이 아름답다고 멋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 “치륵에서는” 항상 나무들이 줄지어 사시사철 초록빛을 띄지만 한국은 계절에 따라 나뭇잎의 색깔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단풍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 아줌마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친구들이 ○○엄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놀림을 받아서 아이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입을 다물어 버리고 우울해 하는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는 갈등과 아픔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던지는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더군요. 왜!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필리핀 사람 돈 없어요? 라는 말로 친구들이 주는 상처를 엄마에게 고스란히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필리핀에 가서 학교 교육을 시키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한국어 선생님과 아이 친구엄마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도움으로 잘 극복하고 있지만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디에서 교육을 시킬 것 인지에 대해 오늘도 걱정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는 한국의 아들딸인데 말이예요.

“이제 나도 한국아줌마”

첫 아이를 임신 했을 때 입덧이 심했는데 갑자기 깍두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살 팔자인가보다.”라고 웃으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깍두기를 담가주셨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하나만 믿고 낯선 나라에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부부싸움도 많이 했죠.

필리핀에서 온 저는 추운 겨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갈비를 먹은 다음에 냉면을 먹고 “아,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고 뜨거운 여름에 팔팔 끓은 삼계탕을 먹고 “아, 시원하다.”라고 하니 저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수는 왜 그리 많은지, 또 제사 하고 명절 때는 어떤가요? 전 부치고 음식을 만드느라 여자들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는데, 남자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자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가장 기다려지는 저에게 남편은 그냥 쉬는 날이고요, 몸살이 나고 아기까지 아팠던 날에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일 그만 하고 빨리 집에 오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평평 운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저는 두 공주님의 엄마가 되었고 한국 아줌마가 되어갑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두 딸들에게는 “빨리빨리”라고 소리치고 잡채와 나물 정도는 이제 혼자서도 잘 만든답니다.

“스팸 문자”

조금씩 한국어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었을 때 남편의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빨리 와”, “오빠 나 어떻게”… 이런 말들을 자주 보내 왔어요. 남편에게 물어 볼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여자 친구가 있으니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혼자 결정하고 짐을 싸서 한국어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선생님이 시아버님께 연락을 해서 시아버님이 오셨어요. “네 남편 못 믿으면, 나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님의 정이 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집에 돌아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에게 온 문자가스팸문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잘 넘긴 지금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예쁜 딸과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벌써 한국에서 다섯 번째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상한 것은 어! 나뭇잎이 왜 이렇게 시들지? 내가 여기 온 것을 싫어할까? 안 그래도 먼 곳에서 왔는데 나무도 나뭇잎도 나를 싫어하나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나를 어떻

게 볼까? 불안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며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순간에 낙엽이 떨어지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김장)를 만드는 계절이 다가오죠. 김치하면 ‘맵다’는 생각이 들죠? 다 그렇지 않아요, 김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번 드셔 보세요. 그래야 한국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을의 풍요로움이 저의 한국 생활에 깊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주부입니다.

석수도서관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는 나의 제자들의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오해와 편견이 서로에게 상처로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기는 더딘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욱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석수도서관 ‘꿈과 희망의 한국어교실’에 아름답게 드리워질 무지개를 그려 봅니다.



수요일은 설레임

- 그림책읽기 자원봉사를 하면서 -

박달도서관 “행복한 의자나무” 박명숙

“선생님~ 이거요”

꼬마 아이가 작은 초콜릿 상자를 내민다. 색종이를 포장지 삼아 두른 모양인데 투명테이프 조각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고 그나마 삐뚤삐뚤해서 초콜릿 상자가 훤히 보인다. 얼른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선물을 받았다.

“고마워~ 선생님 주는 거야. 이야~ 맛있겠다!”

아이는 몸을 꼬면서 엄마 등 뒤로 몸을 숨긴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몇 번이고 쓰다듬어 주었다.

어느 봄날 “책읽기”를 마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때 아이가 준 선물이다. “서툴지만 선생님 드린다고 아이가 싸운 거니 받아 달라”며 쑥스러워하셨던 아이엄마도 떠오른다.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그날 하루종일 자원봉사 회원들에게 초콜릿이 녹도록 자랑한 것은 당연하다.

책을 읽어주는 내내 내 목소리와 작은 손짓 하나에도 반응하는 천사같은 꼬마친구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거나 무서워서 손에 힘을 주고 있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예쁜지. 물론 가끔은 작은 수고로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무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에 얼굴을 한기득 밀어넣고 “아. 아. 아~~” 마이크테스트를 하는 아이도 있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흥!”하고 호랑이 소리를 내면 무서워 우는 꼬마도 있다. 그래서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책읽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듣는 아이들이나 읽어주는 나나 함께 온 어른들 중 그 누구도 불행하지 않다.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온다. 귀여워서.

“저~ 책읽기 봉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쭈뼛거리며 박달도서관 ‘어린이실’에 찾아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책읽기 봉사를 한 지 벌써 5년차가 되었다. 동화구연에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많아야 하는 봉사인 줄 알고 아예 도전도 안 하다가 그냥 물어나 보자 싶었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다. 도서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동화구연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매주 수요일은

경험 많은 선배님들의 동화구연을 2편이나 관람할 수 있으니 출중한 실력이라고 여겼던 것은 저절로 체득 되어갔다. 무엇보다 살뜰히 챙겨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회원들이 있어 두려움은 금세 사라졌다. 일을 하면서 책임기 봉사를 하는 나는 다른 회원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책임기 날짜나 공연 연습 요일과 시간을 짤 때 항상 내 시간을 먼저 배려해 주고 기다려 준다. 이런 “행복한 의자나무” 회원들의 따뜻함과 배려 덕분에 5년 째 봉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감사한 일이다.

“행복한 의자나무”에서는 매주 수요일 책임기 봉사 말고도 1년에 여름, 겨울 2회의 정기공연도 있다. 평소 책임기를 하다가 매년 8월과 12월에는 인형극, 멀티동화, 구연, 보이는 동화, 동극, 손유희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한다. 전 회원이 역할을 맡아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데 너무 멋진 경험이다. 대본, 손유희 그리고 무대배경, 의상 등 하나에서 열까지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서 한다. 열정 하나로 공연을 하는데 이젠 재능이 되어버린 회원님들도 많다. 사실, 소심한 구석이 있는 내게 무대에 서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호흡을 맞춰 연습을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 회원들이 채워주곤 해서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한다. 매주 도서관을 찾아주는 꼬마친구들과 도서관 인근 주민들에게 동화잔치를 여는 두 차례의 공연은 준비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또 도서관에서 공연한 후 인근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으로 공연 관람을 오고, 어린이집과 장애인학교 등으로 공연을 가기도 하는데 책임기 봉사로 재능기 부도 할 수 있어 더 뿌듯하다.

살짝 비밀을 이야기 하자면, 나는 남들보다 몸이 튼튼하고 ‘똥똥’하다. 앞에서 책을 읽거나 공연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그런데도 나는 “행복한 의자나무” 중심이다. 손유희 할 때 다른 회원들은 깜찍하게 잘하는데 나는 꼭 틀린다. 그런데도 나는 결눈질로 보고 따라하더라도 손유희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동극에서 신데렐라의 호박마차를 만들어 주는 “요정” 역할도 한다. 내가 틀린 동작을 몇 번이고 웃으며 가르쳐 주는 정화선생님이 있고, 내 몸에 맞추어 조각 친을 잇대어 요정 옷을 만들고 쓰고 버린 고깔을 이용해 요정 모자를 만들어주는 미정선생님도 있고, 어설픈 내 연기를 지도해 주는 미자선생님, 나를 기꺼이 주인공으로 발탁시키고야 마는 미애선생님도 있고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항상 격려를 해 주는 사랑스런 “행복한 의자나무” 회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니 두려울 건 더더욱 없다.

나는 재미있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림동화로 아이들과 만나는 수요일의 이 설레임을 계속하고 싶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유모차를 타고 오고 할머니, 엄마 손 잡고 오고 어린이집 선생님 따라 오는 우리 예쁜 꼬마친구들이 그림책과 함께 밝고 명랑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하나, 하얀 거짓말이 있다. 꼬마친구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지구 박달동에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미있는 동화책도 많아 마구마구 먹다가 똥똥해 진 것이고, 무거워서 하늘로 못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끔씩 동요를 부르다거나 손유희를 할 때 버벅거리고 실수 연발하며 책을 읽다가 목소리가 갈라져 나오고 새된 비명이 되어 나올 때도 있다. 그때마다 나는 천사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꼬마친구들도 웃어준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에서 만나는 꼬마친구들과 책읽기가 좋다.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박달도서관 “행복한 의자나무” 박명숙

박달도서관 어린이실은 둥근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유리 창가에 책상이 둘러 있다. 책상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 푸른 잎의 키 큰 나무들이 있고 초록색 벤치와 아이들이 있다. 가끔은 눈이 와도 좋고 비가와도 좋다. 둥근 창 안을 들여다보면 한 장 한 장 책을 넘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 반갑다. 책 한 장을 넘기면 마녀가 나오고 또 한 장을 넘기면 스프가 나온다. 마녀는 스프를 끓이면서 다음 장에 나올 여러 가지 양념들을 나열한다. 음식이 완성되면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입에 어느새 침이 고인다. 이렇듯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는 언제나 보물이 가득하다.

나에게도 보물이 있다. 바로 내 아이들이다. 어린 시절 어떤 책을 읽어줄까 고민하다가 박달도서관에서 회원증을 만들고 책을 골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내가 도서관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큰아이는 여섯 살, 작은 아이는 네 살이 되던 해였다. 동화구연 수업을 받고 있던 중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행복한 의자나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어린이실에서 짧은 시간 책 정리하는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내 삶에 꽃이 폈다. 내가 원하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책 읽어주는 봉사를 계속 할 수도 있었고 책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 나의 보물들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책 읽기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은 나날이 많은 책을 읽고 또 읽어 나갔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큰 아이는 제법 글쓰기를 잘 하고 영리한 청소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어린이로 자랐다.

박달도서관 어린이실에 많은 아이들이 보물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꼬물꼬물 생각의 실타래에서 실을 풀었다 감았다 한다. 나는 책을 정리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예뻐서 혼자 웃고 있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어디를 가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보고 중얼중얼 하는지 옆에 가서 말을 걸고 싶지만 아이의 생각을 멈추고 싶지 않다. 책의 종류는 참 많다. 그리고 너무 많은 책들을 고르기도 힘들다. 엄마는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책을 고르는 것일까? 아빠는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릎에 앉혀 놓고 책을 읽어주고 있을까? 어떤 할아버지는 받침이 없는 책과 있는 책을 골라 달라고 하신다. 둥근 유리창 앞 책상에 앉아 그 책을 보시면서 중얼중얼 하신다. 그리고 잘 봤다고 내일 또 오마하고 손을 흔드신다. 나는 허리 굽혀 인사를 한다.

이런 풍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좋다. 그리고 내 미래도 도서관에서 더욱 빛 날 것이라 믿는다. 도서관에서 보물들이 꿈틀거리고 나는 보물에게 말을 건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 거니?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앉아 있다가 책 냄새 사람 냄새만 맡고 가도 좋으니 박달도서관에 아이들의 발길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불어 도서관에서 '꿈 찾기'를 계속 하기 바라며 희망충전 박달도서관이 어린 시절 추억이 어린 장소로 기억 되었으면 좋겠다.



귀여운 꼬마들이 안녕

석수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성현

군 전역 후 복한한 첫 학기에 봉사활동과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나씩 하게 하셨다. 대인봉사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라는 제한만 두시고 원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할 지 찾던 도중 석수도서관의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하였다. 1365사이트에 적혀있는 것은 간단하게 다문화 행사 지원 이라고만 써있었는데, 전화해서 알아보니 아이들 동화구연 교육하는 것 보조하는 일이라고 하셨다.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할 뿐더러 아이들도 나를 잘 따르는 편이라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바로 신청하였다.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고, 선생님께서 크게 할 일은 없다고 하셨음에도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하는 봉사라 잘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모르는 사람들과 첫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됐다. 의구심과 떨림을 안고 첫 날 강의에 참석했는데, 생각보다 더더더더 귀여운 아이들 때문에 긴장이 바로 눈 녹듯이 사라졌다. 수업에 아이들만 참여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동화 구연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교구를 만들고 배우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다. 강사님께서 아이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시면서 앞에 나와 발표하도록 많이 하셨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쑥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물론 쑥스러워 하는 모습도 귀여웠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수업 분위기에 적응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강사님들 및 선생님들 그리고 나와도 친해지게 되면서 수업 참여도 훨씬 활발해졌다. 강사님이 시켰을 때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히 나가서 발표를 하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먼저 손을 들고 나서서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부모님들의 태도도 처음과는 점점 달라졌다.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시는 기색이 있었지만 갈수록 아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들을 보이셨다. 특히 같이 오셨던

아버지들이 참여하시는 모습들이 매우 보기 좋았다.

처음에는 다문화 가정만 수업을 들었는데 후에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사를 보이는 한국 가정들도 있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한국 가정의 아이들이 어울려 동화구연을 같이하고, 자기네 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매우 흐뭇했었다.

봉사활동 하면서 만났던 귀여운 아이들은 물론이고 유쾌한 강사님, 이쁜 담당선생님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2개월 반 정도 짧다면 짧은 기간의 봉사활동이었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재밌었고 보람찬 활동이었다. 귀여운 아이들을 다시 못 보는게 제일 아쉽다.

애들이 잘 지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자!! 감기 조심하렴~



자원봉사 체험 수기

호계도서관 씨앗열매독서회 자원봉사자 김 선 아

아직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도서관에서 만난 15명의 꼬마 신사숙녀 들은 매우 의젓했다. 이제 막 1학년 티를 벗고 제법 성숙해진 모습으로 오늘은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했다. 아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지 서로를 탐색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조용히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 만난 선생님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잔뜩 궁금한 얼굴을 하고서 말이다. 내가 재능기부로 아이들과 함께 책임기를 하기로 한 '어린이 독서회'에서 만난 천사들이다.

추위 때문에 잔뜩 움크린 어깨를 하고서도 읽어 주는 그림책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를 종긋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림책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더 듣고 싶다는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그림책 안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이야기에 대해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토박토박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아이들은 마치 책을 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듯이 책 속의 주인공 대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새롭게 책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꽃이 피고 나무는 점점 푸르러졌으며 단풍이 들고 눈이 왔다. 계절을 반복하면서 몇 권의 그림책 덕분에 아이들도 크고 나도 컸다.

처음 만났을 때는 수줍음이 많아 대답 한 번 하는 것도 힘겹던 아이는 이제는 제법 종알종알 거린다. 책과 관계없는 주변 이야기로 친구들의 눈총을 받았던 아이도 몇 번의 책임기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책을 읽고 싶어 하고 그림 한쪽을 훑쳐보기도 하면서 책과 가까워져 가는 것을 본다. 나는 수많은 책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골라 더 재미있게 책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매번 고민을 거듭한다. 그 결과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나도 책과 함께 마음 한쪽이 크게 자란 것을 알 수 있었다. 흔히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한다. 그러나 순수하고 꿈이 많은 아이들에게서 받는 기쁨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친구가 준 껌 하나를 반쪽 나눠주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씹으려고 가져왔으니 반 드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마음은 상상 그 이상으로 예쁘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난 어느 날 나를 꼭 안아주면서 '방학 때는 왜 안 해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서운한 마음에서도 그동안의 땀방울을 훔쳐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가르쳐줘서 고맙다'라는 표현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었으리라. 이렇게 예쁜 마음들을 받아왔으니 재능기부, 자원봉사라는 말보다는 씨앗을 뿌려 함께 자라 열매로 결실을 맺는 함께 커가는 나무라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아이들과 더불어 자라고, 아이들에게서 받는 것이 훨씬 많으니 나는 감히 받는 기쁨이 더 좋은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어설픈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다.



추억 거리 하나 더, 그림자극 공연

- 동화 읽는 어른모임 가을 문화 행사 공연을 하며 -

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조혜원

저에게는 8살 때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했던 피아노 발표회.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의례 하는 행사로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발표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무대 위의 눈부신 조명은 아직도 머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피아노를 아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발표회를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발표회 자체가 저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때는 완벽한 연습만이 실전에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능하면 남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꺼려하며 살아 왔습니다. 실수가 두려웠고 실패도 두려웠거든요. 그저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나의 내성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지내 왔습니다. 처음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나갔을 때 내가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어린이 책을 읽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림자극의 이야기를 얼핏 듣고 가을 문화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림자극? 뭐지? 하면서 뭐 그런 것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차츰 가을 문화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림자극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제대로 해야만 그림자극을 보러 온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자극의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도 사실 부담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형 두 개 잠깐 드는 것이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편한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공연 날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찌지? 내가 과연 그림자 인형의 느낌을 잘 살리기는 하는 걸까? 연습도 하기 전부터 먼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토끼와 자라'라고 제목이 정해지자마자, 공연을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연출을 하고, 대본을 쓰고, 인형을 그리고, 조명, 음악, 목소리 연출까지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선배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듯했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니, 호흡이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극 몇 년으로 서로 행동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척척 맞는 사이 좋은 친구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속에 살짝 발만 담갔을 뿐이었죠.

그래도 공연 당일 날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림자극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들 모두 차분하게 그림자극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은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림자극을 진행해서 연습 때 보다는 조금 더 못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어두운 커튼 뒤에서 우리끼리 인형도 떨어트리고, 우왕좌왕 할 때는 서로 키득키득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어떤가, 약간 어색하면 어떻게, 그림자극을 보는 아이들의 동그란 눈을 떠오르니 마음 한편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림자극이 끝난 뒤 우리 아이가 기억에 남는 대사를 열심히 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재미있긴 했었나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와도 협동하고 공동의 무언가를 만들어 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림자극 공연은 또 다른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결과 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 주었던 과정이 머리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극을 통해 저 또한 내성적 성격에서 외향적 성격으로 1% 전진한 느낌이구요.

그림자극을 끝내고 나니 우리 아이들이 다시 보이더군요. 요즘 아이들, 학원에 다니느라고 놀이터에서 놀 시간도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같이 놀 때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마저 빼앗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같이 무언가를 협동하면서 하는 일을 아이들도 많이 경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꼭 주인공을 하지 않더라도, 저처럼 그림자극의 작은 일부가 되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는 소중한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동화 읽는 어른모임』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안양지회 그림책 연구모임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해마다 가을에는 그림자극과 단청체험 만들기, 멀티동화 등 풍성한 가을 문화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책을 나누면서 얻은 행복

-책 나눔 행사 'check it out'을 진행 하면서-

안양예술 고등학교 2학년 연극영화과 연출전공
최은솔(옴파로스 대표)

석수 도서관으로 가는 중에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를 꺼내서 주르륵 넘겨본다. 낡고 빛바랜 노란 종이들을 계속 넘겨보는 이유는 이 책을 선물 받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몇 년 동안 나와 함께한 책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 또한 크기 때문이다.

'check it out' 행사는 이번년부터 진행된 행사이다. 동아리 옴파로스는 안양예술 고등학교에서 각각의 재능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연극영화, 사진, 문예창작, 미술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주제를 정하여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는 활동을 한다.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 책을 통해 부원들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이러한 즐거움을 공유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check it out' 행사를 고안해 냈다. check it out의 뜻은 "자, 잘 들어봐." 라는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책 잇 아웃'처럼 한글로 발음하여 책을 꺼내라. 라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 행사는 독서퀴즈, 책 나눔 지식 나눔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부에는 독서퀴즈를 통해 석수도서관 사람들에게 여러 소설들을 소개하고 2부에는 주 활동인 책 나눔 지식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책 나눔 지식 나눔은 동아리 부원이 각자 자신의 책을 선정하여 느낀 점을 적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활동이다.

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라는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책이다. 책은 1998년에 출간되었는데, 내가 태어난 다음 해였다. 나의 엄마는 어릴 적부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 해주셨다. 내가 네, 다섯 살이었을 무렵 엄마는 마음에 크게 와 닿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동물가게에 한 어린아이가 찾아왔단다. 아이는 강아지를 둘러보며 어떤 강아지를 키울지 고민하고 있었지. 마음 착한 동물가게 주인은 아이가 가진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싼 값에 강아지를 주려고 했어."

그런데 아이는 다리를 저는 작고 왜소한 강아지를 골랐어. 주인은 그 강아지는 파는 것이 아니라며 다른 강아지를 추천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장애가 있는 강아지를 사겠다고 하였지. 결국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아이에게 그냥 강아지를 주려고 했어.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 있는 구겨진 돈을 건네고 한쪽바지를 들어 올렸어. 그곳엔 다리대신 의족이 있었어. 그리고 아이는 자신만이 강아지를 이해할 수 있고, 강아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 그제야 주인은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이의 품에 강아지를 건네주었다.”

어릴 적 나는 이야기를 듣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금까지, 누군가를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자는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 책은 나에게 선생님이자, 친근한 친구였다. 나는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며, 책을 선물 받을 사람도 조금이나마 책을 읽고 얻는 교훈이 있길 바랐다.

내 책을 선물 받은 아이는 신기하게도 내가 처음 이 책을 읽게 되었던 때와 같은 5살의 귀여운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가 나와 같이 이 책을 읽으며 느낄 따듯한 마음을 생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마무리를 할 이야기를 하던 중 책을 선물 받은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도 책 나눔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맨 앞에 서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이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다.’ 라는 말씀과 딸이 책을 선물 받은 것이 고마워 자신도 책을 선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책값을 주시며 박서원 저자의 ‘생각하는 미친놈’이라는 책을 사서 꼭 읽어보라고 했다.

집에 가자마자 인터넷으로 책을 검색해보니, 저자가 광고 기획자이며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광고들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때 11살짜리 남동생이 내 뒤를 기웃거리며 내가 보고 있는 광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우리는 박서원의 ‘전쟁을 비판하는 탱크의 총구가 군인을 겨누는 사진, 장애인에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들다는 광고’ 등 기발하고 독특한 광고들을 찾아보았다. 그때 동생이 조곤 조곤한 말투로 “누나,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동생은 평소에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평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던 터라 동생이 광고 제작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는 것에 놀라웠다. 동생은 이 책

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고, 나는 즉시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다. 나는 그때 이번 행사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을 아이에게 나누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책을 나누게 되었다. 나아가 아버지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나에게 추천해주고 그 책은 내 동생에게 영향을 주었다. 어쩌면 동생이 나중에 영향력 있는 광고 기획자가 될지도 모른다. 내 책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느낀 보람은 이렇게 나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크게 다가왔다. 책을 나누는 것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 이번 책 나눔 지식 나눔 행사를 통해 나누는 것에 대한 보람, 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 행사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책을 받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래본다.



다시 만나요 책 잇 아웃!

- 두 번째 'check it out'을 진행 하면서 -

안양예술고등학교 1학년 연극영화과 연출전공
강기련(옴파로스 영상제작부 부장)

독서의 계절 가을, 우리 옴파로스는 두 번째 책잇아웃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지난 7월 여름에 시작된 책잇아웃 행사는 우리 옴파로스의 첫 외부 활동으로, 우리가 읽은 책을 작은 코멘트와 함께 책나눔과 독서 퀴즈로 진행되는 지식 나눔으로 나뉜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옴파로스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인문학'을 위주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있다. 그 동안은 학교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 첫 외부활동을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다소 우왕좌왕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선배들, 그리고 석수도서관 담당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 1, 2회 모두 정말 뜻 깊은 행사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1회 책나눔을 위해 준비하던 책은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내가 5학년 때 백일장에서 받은 책이었는데, 한 동안은 그저 한비아의 경험담 위주로 읽어서 그런지 색다르다는 느낌 이외에는 별로 들지 않았다. 하지만 옴파로스에서 여러 책을 읽으며 토론한 뒤에 이 책을 다시 읽으니 느낌이 새로워 이 책을 나눔하게 되었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세계 방방곡곡의 재난지역을 돌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비아의 이 기록은 그저 일화를 담은 것이 아닌 그녀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오지 탐험가에서 NGO단체의 긴급 구조 요원이 된 한비아 또한 처음에는 자신에 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재난지역에서 만난 의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한비아는 그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가난한 나라에서 보수도 적은 긴급구조 의사로 활동하는지 물었다. 그 의사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한비아는 이 말이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꿈'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다. 꿈은 무엇일까? 단순한 장래희망일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소한 꿈일까? 이 책이 이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경험 속에서 우러나는 본질, 참뜻을 깨달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책에 몇 번 밑줄을 그어보며 읽었는데, 이 말에는 물결표시로

해 두면서 두고두고 읽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은 친구가 나와 같은 느낌을 공유했으면 하며 코멘트를 달았다. 그리고 이 책을 받은 류하연 친구의 메일을 보고서 책잇아웃을 통해 다른 학교의 친구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2회 책잇아웃에서 나누었던 책은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철학적인 의미를 조금 담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안양예고에 입학했을 때 신입생 과제로 나왔었던 책인데, 철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조금 갖고 나서 읽으니 느낌이 새로워 나눔하기로 결정했다. 인간론, 그리고 연역논제, 이데아론 등 고차원적인 철학 키워드를 보다 쉽게 설명한 이 책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배경지식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조금 공부하고 나면 처음 읽었을 때와 달리 상당히 즐겁고 신기한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받은 학생도 류하연 학생처럼 나와 느낌이 잘 나누어지길 바란다.

이번 책잇아웃 2회 행사를 마지막으로 2014년 책나눔 지식나눔은 끝났다. 하지만 내년 2학년 때에 준비하는 책잇아웃은 어떤 친구에게 어떤 책을 나눔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잇아웃이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우리 옴파로스 부원들, 윤이정 선생님, 석수도서관 선생님들, 그리고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촌도서관 동화구연 봉사단체

-내 마음에 동화-

2011년 평촌 도서관의 '어머니 동화 구연' 수강생들이 "내 집 아이가 잘 크려면 옆집 아이가 잘 커야 한다!" 는 강사님의 말씀에 뜻을 모아 실천 하고자 만든 '내 마음에 동화'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초대 멤버 4명의 선생님이 시작하여 지금은 11명의 선생님들이 참여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동화'

2011년 여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6살 딸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놀러 갔다 알게 된 '내 마음에 동화' 그때는 선착순 입장 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은 사전 참여 모집 신청으로 수업방식이 바뀌었다.) 그때 선생님들이 외부 강사가 아니라 재능 기부 봉사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나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 참여 하게 된 재능기부 봉사가 내 단조롭기만 하던 삶에 미풍과 같은 활력이 되어 주고 있으며 6~7세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번 1시간 남짓 만나는 시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발하리만큼 창의적인 모습을 보며 설렘이라는 선물이 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선생님들과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미리 모여 책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어떤 교구를 만들 것인지, 각자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토론하고 협의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이 모여 만드는 과정 또한 숙제를 펼쳐 놓는 기분이 든다.

'내 마음에 동화' 재능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봉사인 것 같다. 일주일에 한번 청량음료 같은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꼭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봉사이다. 시원한 바람은 세차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더운 여름날 땀을 식혀 줄 수 있는 가벼운 미풍이지 않은가 아이들의 마음에 가벼운 미풍을 불어 넣어 줄 수 있길 희망한다.

- '내 마음에 동화' 봉사자 <이보영>

아이들을 보면 막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다.

그 벅찬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봉사를 계속 한다.

- '내 마음에 동화' 봉사자 <황숙자>

핵가족화로 조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 '내 마음에 동화' 봉사자 <정미자>





* 초대작품전



노을

박점득

아파트 6층에 사는 경숙이 할미
 길 건너 아파트 14층에 사는 아들네 집 간다
 가슴을 활짝 열어 화들짝 반기는 엘리베이터 14층 버튼
 1누르고 4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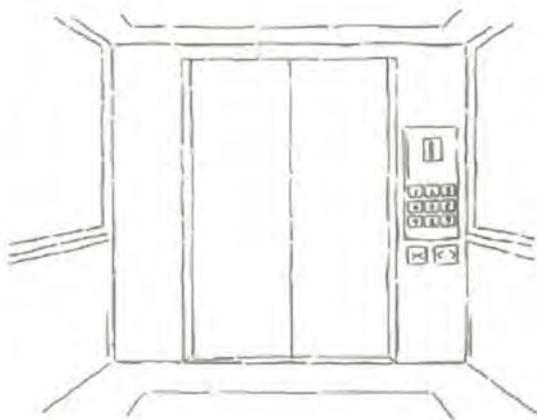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없다
 …… ? 할미는 몇 초 머뭇거리다 14층 버튼
 다시 1누르고 4 누른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고 문이 열린다
 종이날개 가벼이 떠는 우편함만 보일뿐 아무도 없다
 할미는 가웃거리며 또 다시 14층
 1과 4를 확인하듯 꺾꺾 누른다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은
 외길로 오르락내리락 네모 세상에 간혀
 한 생을 다 보낸 듯 부글부글 속만 끓이는 중
 어찌다 눈에 땀 뚝뚝 숨은 숫자 14, 14, 14

누가 몰라 누가 알라
 무너지는 허탈감에 헛웃음만 눈물겹다
 그래, 갈 곳은 이제 한 곳뿐이지
 하늘 끝자락에 걸어놓는 발그레한 미소 한 잎
 돌아갈 본향옛집을 슬쩍 들여다본다

가까운 아들네집이 멀기만 하다



■ 박점득 : 시인, 수필가 2006년 등단, 토요수필문학회
 2007년 『에세이분예』 수필 등단 시집 『첫!』이 있다.

스며든 창문의 빛에 대하여

김말희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
 풀잎이 이슬을 받는 것처럼
 작은 새소리에도 떨리는 것일까
 무거운 눈꺼풀이 스스로 가벼워질 때 쯤
 한줄기 빛이 스며들면
 누구든지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창문을 연다
 우리에게 창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드리워진 커튼의 짙은 색이
 하얗게 빛바래져가는 시간은
 꽃잎이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이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지
 오래들은 새소리와 이름 들어 눈에 익은 꽃들과
 부드러운 아침햇살에 바랜 창문의 커튼
 그리고, 너와 나, 우리들의 오랜 시간 속에
 스며든 소중한 기억은 한줄기 스펙트럼인 것
 바람의 시간 속에
 누워있는 풀들이 일어난다
 온 마디마디가 다시 꿈꾼다.

■ 김말희 : 시인, 2007년 등단/토요수필문학회/안양문인회
 『익지않은 바람』중에서 2013 문후작가회

남편의 중년

박현

‘만 번을 건뎌야 중년이다.’ 라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담금질이 되어야 도달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삶은 지나가기 어려울 만큼 고단해진다는 메시지 같기도 하다.

남편이 가출을 했다. 청소년 시절에도 해본 적이 없던 가출을 지천명이 넘어서 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 간다고 했던가.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나는 그냥 불을 끄고 자 버렸다. 화가 나면 전화기를 꺼놓는 습관이 있는 남편은 전화를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전화일망정 어디냐고 걱정하는 부재중 전화라도 와 있기를 바랐을 텐데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내버려두었다.

이들이 지나도 남편은 소식이 없고 들어오지 않았다. 직장을 옮기느라 잠시 시간이 있을 때라 가출이 용이했는지 모른다. 회사에 다닌다면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디 언감생심 꿈꿀 수 있을 일이던가. 회사일로 바쁜 나는 오히려 그 여유가 부러웠다.

삼 일째 되던 날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누가 듣기라도 하는 듯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자영업을 하는 그는 남편과 같이 자기 집 근처 찜질방에서 지낸다며 본인도 남편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을 살려주는 셈치고 남편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그가 볼 때 남편은 지금 괜히 나왔다는 후회의 표정이 역력한데 명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내가 들어오라는 문자만 해도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며 자신이 전화한 것은 절대 비밀로 해 달라고 했다.

남편이 가출한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딸을 야단치는데 내가 딸 편을 들었다고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딸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남편은 그날 모처럼 주어진 여유로운 시간에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새로 출근하기로 한 회사의 임원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집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을 알았다. 내 생각에는 중간쯤 간 지점이고 친구와 영화 보는 것이 무에 그리 중요한 약속이라고 충분히 집에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방학을 맞은 딸에게 가져오라고 할 생각으로 그냥 약속 장소에 갔다.

딸은 늦잠을 자느라 아빠에게 걸려온 전화를 여러 번 받지 못했고 전화를 받았을 때 아빠는 빨리 안 받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무조건 휴대폰을 들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어느 전철역으로 나오라고 했다. 딸은 약속이 있는데 아빠의 기세에 눌러 약속을 깨고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딸의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남편의 친구에게 딸은 건성으로 인사를 했고 그날 저녁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남편은 딸을 나무랐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그냥 왔다 가면 될 것을 딸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가져오라고 한 것이 더 잘못이라고 했던 것이다.

남편 친구의 전화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남편은 젊은 시절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다. 돈만 벌고 일만 하는 사이 가족과도 서먹해졌고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는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집안에 덩그러니 들어온 남편이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 딸 앞에서는 남편의 편을 들지는 못할망정 입은 다물고 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고 패기 있던 시절 호탕하게 큰소리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가. 집에서 끼니때마다 차려주던 밥상이 아닌 찜질방 밥상을 받고 한숨 쉴 남편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가족끼리 잘잘못을 따져봐야 무엇하겠는가? 바로 남편에게 얼른 들어오라고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서비스로 하트를 하나 보내는데 손끝이 오글거렸다. 남편은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는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들어갈까 했다.

두 시간 뒤 남편은 삼 일간의 가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디서 샀는지 틀립 꽃이 활짝 핀 화분을 들고 방금 쓰레기라도 버리러 나갔다 온 사람처럼 태연하게 들어왔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마도 새삼 생각했을 것이다.

집을 나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전화기만 바라보며 찜질방에서 며칠간 보냈을 중년이 가엾다. 나이가 들수록 정으로 산다고 했던가. 집에서 점점 내 목소리는 커지고 남편의 자리는 작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찌하랴 남편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쓸쓸하다고.” 또 손발이 오글거리기 시작한다.

가래떡

강애란

떡집 진열대에 조각보처럼 놓인 가지각색 떡을 본다. 팔 시루떡을 비롯하여 흑임자, 호박, 밤, 고구마, 콩, 호박고지, 동부 등 다양한 섞음 재료가 모양과 색깔을 자랑하며 맛을 궁금하게 한다. 인절미, 썩떡, 증편, 오색경단의 모양새는 자석처럼 눈길을 붙잡는다. 백년 초, 치자, 호박, 썩 등으로 색을 낸 바람 떡과 꿀떡도 곱다. 그 옆에 다소곳이 누운 가래떡에 마음이 머문다. 마치 백의민족의 고결한 마음을 간직한 듯 하얗게 모듬을 이룬다. 기다란 통나무 옆에 방금 나온 대팻바치처럼 떡 쪽이 쌓였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빼어 둘러보니 저만치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 서린 기계 앞에서 마냥 바쁜 손놀림을 하느라 손님이 온 것도 모르는 눈치다. 물 구경, 불구경은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떡 집 구경하지 말라는 말은 없겠지? 생각하며 한발 다가서 본다. 나이 지긋한 어른이 주거나 받거나 건넌 논배미 사람에게 외치듯 커다란 목소리를 올려치고 있다. 문득 어릴 적 시오리 밖에 있는 떡 방앗간에 따라 간 일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떡가래처럼 길게 흘러나온다.

신정이라야 그저 1년 썼던 때 묻은 달력을 걷어내고 새로운 달력을 거는 날 정도였지 요즘 같이 해넘이다, 해돋이다 들썩이지는 않았다. 음력설이 다가와야 비로소 명절이라는 느낌이 있다. 설을 앞둔 5일장에서 검정 고무 끝 발등 부분에 갈색 털이 둥글게 대어져 있는 털신을 하나 얻어 신는 날이기도 했고, 언니에게 물려받아 헤진 옷 대신 꼬까옷으로 설빔을 차려입는 날이기도 했다. 현 실을 풀어 조가비 모양 무늬를 넣어 짠 털옷을 받았을 때는 감나무에 마지막 남은 까치밥을 받은 것처럼 오롯했다. 새 옷을 미리 입어도 좋으련만 이리대보고 저리 대보고 머리맡에 두고 잠을 설치면서도 설날 아침을 위해 참고 아껴두곤 했다.

마루 끝에 허영게 눈이 내려왔고 처마 밑에 종유석처럼 기다랗게 고드름이 자라던 초가집. 정지 문을 푹푹 걸어 잠가도 어느 틈에 비집고 들어 온 동지선달 칼바람은 물 묻은 손을 짹짹 갈라놓고 만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만 손을 녹이며 일할 수 있다. 전 날 담갔던 쌀을 새벽바람에 일어나 대소쿠리에 건져놓고 아침을 서둘러 먹는다. 엇그제 옆집이랑 뒷집은 손수레에 싣고 다녀왔다면 같이 못 간 것을 애달아한다.

행여 쌀이 얼까봐 부뚜막 가까이 두고 애지중지 하던 것을 광목자루에 넣어 오목한 그릇에 옮겨 담고 수건 하나를 챙긴다. 이 끝을 잡고 동그랗게 돌려 감아 썩 끼우니 비비 끈 파배기처럼 비틀어져 파리가 만들어진다. 엄마는 그걸 머리에 얹고 쌀 광주리를 올린다. 난 졸랑졸랑 강아지처럼 엄마 뒤를 따른다. 커다란 것을 머리에 이고 걷는데도 내 짠 걸음이 따르지 못할 때마다 엄마는 마치 태엽 인형이 천천히 돌듯 온몸을 빙그르 돌려 돌아다본다. 고개만 휩 돌려 빨리 오라고 외칠 수 없다는 것을 한참 큰 후에 머리에 짐을 이어보고 알았다.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힘을 내어 파닥파닥 뛰어가 따라잡았구나 싶으면 또다시 내 키의 몇 곱절씩 벌어 지곤 했지만 그저 설레고 즐거운 발걸음이었다. 걷고 걸어 방앗간 근처에 다다르니 인당수에 팔려갔던 심청과 아버지가 만난 듯이 얼싸안고 반기는 사람, 머리의 짐을 받아 내리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사람, 메기고 받고 소리판을 벌인 듯 신명나는 마당극 한마당처럼 왈차지꼴 온갖 웃음이 다 모였다. 아랫마을, 윗마을, 조각논, 다락논이 어우러져 이야기꽃이 한창이다.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기계 옆에 다가가 재미난 구경거리에 빠진다. 기계 위 아~벌린 널찍한 주둥이에 쌀을 툽툽 털어 붓고 스위치를 올리니 드르륵 쿵! 드르륵 쿵! 커다란 소리가 난다. 쌀이 가루로 내려온다. 그걸 다시 넣고 한 번 더 가루를 내더니 이번엔 형겼을 칸 네모난 틀에 붓고 불을 올린다. 시루에 찌내는 것이라고 한다. 다 찌진 백설기를 다른 기계에 넣으니 이번엔 풍덩풍덩 물속에 새끼줄 타래처럼 잠긴다. 아주머니가 빠른 손놀림으로 건져 다시 기계에 넣더니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고만고만하게 툽툽 잘라 담는다. 긴 떡 가락이 마치 옛판의 가락엿처럼 나란히 줄도 잘 맞춰 가지런히 쌓인다.

먼저 마친 사람마다 우리 떡 맛있게 되었다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두루 쥐어주며 마음을 나눈다. 조금 있으면 제각각 자기 떡이 나오는데 서로 나누는 것이 어린 마음에 알듯 모를듯하면서도 훈훈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하나씩 받아 먹다보면 그 날은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그득했던 기억이다.

흰 떡과 함께 빠지지 않은 것은 썩을 넣어 새파랗게 만드는 절편이다. 절편은 긴 나무판에 무늬가 새겨진 떡살로 꺾꺾 눌러준다. 그 때마다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무늬가 오돌토돌 생겨난다.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봉어나 국화무늬, 석류, 나뭇잎과 같은 자연 무늬도 있고, 빗살무늬나 길상문과 같은 기하학적 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늬가 꽃처럼 피어난다. 연속무늬를 이루고 있는 나무판의

길이에 맞춰 잘라 담아주면 집에 와서 다시 무늬 하나씩 잘라낸다. 퍼즐 모으듯이 서로 다른 문양을 찾아내어 떡살처럼 늘어놓고 모양을 살피며 먹는 재미도 있지만, 그 예쁜 무늬가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가장자리만 조금씩 베어 먹다가 종내는 입에 속 넣고 우물거린다. 차마 무늬 귀퉁이를 베어 먹고 난 상처를 바라볼 수 없는 아깝고 미안한 마음에서다. 어차피 먹어버릴 것을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데는 복을 비는 염원과 정성이 깃든 조상의 지혜와 여유와 미학이 담긴 것이다.

두어날 지난 뒤 밤이면 윗목에 앉아 떡살을 썬다. 더 마르면 손 아파서 썰기 힘들다며 서둔다. 요즘은 기계로 다 썰어주지만 그 때는 기계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썬 것은 설 날 아침 나이 한 살 담아오는 떡국으로 상에 오른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에 두 그릇, 세 그릇 조금씩 나누어 달라고 떼를 쓴 적이 있다. 그 만큼 나이가 불어나 빨리 크는 줄 알았던 것이다. 떡국이 나이를 한 살 보태고 빼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면 그 반대로 먹고 싶지 않을 텐데 말이다.

떡살 남은 것은 더 말리며 뽕튀기 아저씨를 기다린다.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떡살이 어른 손가락만 하게 부풀어 나오는 것도 신기할뿐더러 부드럽고 고소하고 달콤한 것이 바삭바삭 혀에 착착 붙었다. 달콤한 입맛을 다시고 있자니 간이 손수레에 다 된 떡을 싣고 유유히 걸어가는 아주머니 뒷모습이 타임머신을 켜다. 엄마 따라가서 맛보던 가래떡을 손에 받아 쥐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쌀을 가지고 와서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반갑다.

떡보다는 빵이 익숙하고 밥보다 패스트푸드가 가까운 때다. 저 어린 세대가 가고 내 자녀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떡 방앗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가래떡이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는커녕 떡도 공산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리 조상은 길게 나오는 가래떡처럼 무병장수하라는 소망을 담아 새해에 가래떡을 뽑아먹었다고 한다. 그해 재화가 넉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엽전모양 떡살을 썰어 떡국을 나누며 풍요를 기원했다고 한다. 그 때를 생각하며 가래떡을 썰어 본다. 어스어스 고르게 썰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썰 때마다 긴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도톰한 것, 찌그러진 것 제각각이다. 하지만 떡 쪽 하나하나에 큰 탈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한 고마움과 새해 부푼 기대를 담아 본다. 올 설에 먹는 떡국은 가족이 건강하고 저마다 제 위치에서 제 값을 하는 복 떡국이 되기를 바란다.

■ 강애란 : 수필가. 2012년 『문학이후』등단/문후작가회/토요수필문학회

달을 찾아 떠난 남자

- 『달과 6펜스』를 읽고-

석수도서관 김 순 이

요즘 드라마에 빠졌다.

내용인즉, 주인공은 자신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에다 적당한 심술을 겸비하시고 재산은 많지만 죽을 날이 가까운, 노환에 시달리는 70대 대기업 회장이다. 어느 날 밤 그가 자동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다 별안간 싱크홀에 빠지는 큰 사고를 당한다. 그것은 때마침 떨어진 유성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치의가 처방해준 약을 먹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리고, 운석隕石을 약으로 오인하여 삼켜 버린다. 그런데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노인이 몸을 추스르고 집에서 목욕을 마치자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 약 때문이었는지 노인의 몸이 갑자기 근육 뻣뻣한 30대 초반의 멋진 남자로 변신해버린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졸지에 자신의 존재는 없어졌지만 젊음과 시간을 선물 받은 행운의 남자가 좌충우돌 살아가는 방법이 재미있을 것 같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내용이라,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냐고 코웃음을 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 시간을 거슬러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간에겐 단 한 번의 인생이란 시간이 주어질 뿐, 지나온 행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달과 6펜스』라는 책을 읽으며 제목의 뜻이 궁금했다. 그런데 달은 삶의 이상을 6펜스는 현실을 의미한다고 한다. 6펜스는 동전처럼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누구나 달을 품고 살아가지만, 현실을 포기하고 이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이상보다 밥이 우선이라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더 나은 세계를 갈망하며 자아실현을 향해 가는 게 인간이 아닐까? 그렇다고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모두 이상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마다 삶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주인공 스트릭랜드는 영국 런던의 주식중개인으로 안정되고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가족을 두고 말없이 사라진다. 부인은 그가 바람이 나서 새살림을 차렸을 거라 확신하고 배신감에 치를 떤다. 기대와 달리 주인공은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든 걸 버리고 이웃 나라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

가난한 파리의 거리에서 빈손으로 살아가는 그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구울이나 도덕 같은 것도 온전히 벗어 던진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건 추위와 배고픔이다. 그래도 그림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라서 약간의 빵과 허기만 채워지면 일을 팽개치고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단지 손재주 있는 떠돌이 부랑아라고 생각할 뿐이다.

결국, 주인공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나중엔 눈까지 멀게 된다. 그래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끊지 못하고 벽화를 그리지만, 세인들로부터 작품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야 천재였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의 작품은 거의 구할 수가 없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게 되지만 스트릭랜드의 유언에 따라 대작들이 거의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왜 자신의 작품을 모두 태우게 했을까? 사실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선택한 예술의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 그가 겪은 고통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희열로 대신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문둥병에 걸리고 종내에는 실명까지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반감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기야 자신이 세상을 뜨면 작품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책의 등장인물 중엔 스트릭랜드 말고 또 한 명의 달을 선택한 남자가 나온다. 천재 의사였던 아브라함이다. 그는 탄탄대로의 출셋길을 접고 지중해의 어느 섬에 매료되어 그곳에 정착한다.

직업으로 말단관리도 마다치 않고 궁색하지만, 불만 없이 살아간다. 대신 혜택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 밑에서 언제나 이인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이다. 불안한 미래와 직장을 걱정하며 평범하게 살 뻔했던 그는 아브라함 대신 최고의 연봉과 작위를 누리고 온갖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살게 된다.

‘누가 더 행복할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망설여진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오히려 후진국이고, ‘삶의 질을 어떻게 느끼는가?’ 의 답변에 우리나라

라와 북한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부와 명예가 반드시 행복지수에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달과 6펜스』는 작가 서머싯 몸이 자신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다간 후기 인상파 화가 고갱을 모델로 쓴 소설이다. 이글에서 저자는 예술가의 개성을 존중한다. 스트리랜드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다면, 그리고 그의 개성이 특이하고 독자적이라면 그 외의 결점들은 기꺼이 용서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사실 나도 주인공이 가정을 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를 혐오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장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살았다. 말년엔 그와 가족이 문둥병에 걸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까지 당해야 했으니 동정심도 간다.

혹자는 말한다. 예술가라고 해서 가장으로서의 무책임마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남편의 실종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첫 부인 에이미를 지지하고 싶어 한다. 한편으론 속물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삶이 한낱 일장춘몽이고,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과감히 달을 선택한 스트리랜드의 삶을 나쁘다고만 할 순 없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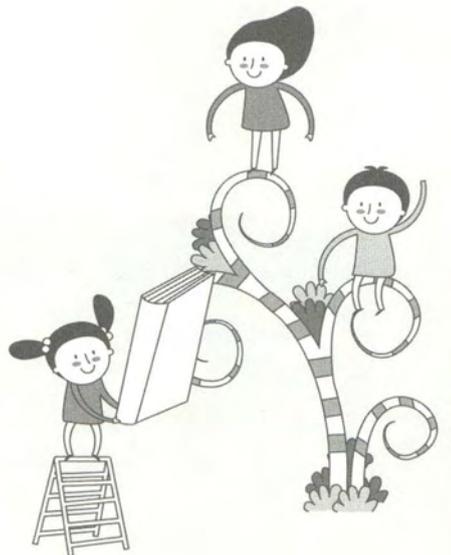
결국,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삶을 불사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스트리랜드가 당당히 자신의 꿈을 선택하고 예술의 혼을 불태우다 간 용기에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사람들은 모두 달을 찾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좀처럼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달은 너무나 먼 곳에 있어 그곳을 향해 가기보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의 6펜스를 주머니에 넣고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는지도 모른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 아쉬움은 남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후회 없이 살았노라.'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그대는 모든 걸 버리고 꿈을 좇아갈 용기가 있는가?' 라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용기도 없다면, 나처럼 드라마의 주인공이 드셨다는 알약이 출시되길 기다릴밖에.

*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관 이용안내

● 시설현황

구 분	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박달도서관	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	비산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별말도서관
주 소	만안구 양화로 217번길 34호 (석수동)	만안구 냉천로 51호 (안양6동)	만안구 박달로 459호 (박달동)	동안구 관평로 213호 (관양동)	동안구 경수대로 685번길 26호 (호계동)	동안구 관악대로 123 (비산동)	동안구 동안로 66호 (호계동)	동안구 흥안대로 434 (평촌동)
전 화	031) 8045-3803	031) 8045-3831	031) 8045-3378	031) 8045-3871	031) 8045-3891	031) 8045-5728	031) 8045-3864	031) 8045-6301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2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2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면적	10,652㎡	4,190㎡	2,504㎡	3,624㎡	2,865㎡	3,244㎡	3,280㎡	236㎡
장서현황(권)	298,135	295,908	63,875	215,299	150,331	38,716	70,522	22,708

홈페이지 : www.anyanglib.or.kr

● 이용시간

구 분	열람실	자 료 실	
		평 일	주말(토, 일)
동절기 (11월~2월)	08:00~23:00 (평촌도서관 08:00~24:00)	09:00~18:00 (관외대출 09:00~22:00)	09:00~17:00
하절기 (3월~10월)	07:00~23:00 (평촌도서관 07:00~24:00)		
2·4·5주 정기휴관일	08:00~20:00	휴 실	

● 휴관일 및 회원가입

구 분	휴 관 일		회 원 가 입
	정기휴관일	국경일	
동절기 (11월~2월)	매주 월요일	국가공휴일	▶ 가입자격 : 안양시민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진1매 회원가입 신청서
하절기 (3월~10월)	매주 금요일	국가공휴일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각 도서관 2·4·5주 정기휴관일은 열람실 개방



2014

안양사랑

글모음집 / 제11집

인쇄일 : 2015년 01월

발행일 : 2015년 01월

발행처 : 안양시 석수도서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7번길 34호 (석수동)

인쇄처 :  사회적기업 (주)디자인나무 T. 031) 337- 5700

2014
안양사랑

글모음집 / 제11집



안양시립도서관

<http://www.anyanglib.or.kr>

석수 · 평촌 · 만안 · 호계 · 박달 · 비산 · 어린이 · 별말도서관